

어느

덧

로컬관광을 움직이는
26인의 이야기

완주



완주문화재단
Wans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완주DMO



어느 덧 완주

로컬관광을 움직이는
26인의 이야기

Contens



Chapter. 1

배움에서 피어나다



Chapter. 2

문화로 움직이다



Chapter. 3

뿌리로 살아내다



Chapter. 4

내일을 밝히가다



소영섭	시대를 관통하는 사진 예술가 <소영섭>	08
진정옥	도예의 길에서 찾은 희망을 찾다 <봉강요>	12
신선하	글씨로 살아보는 날들 <나날글씨공작소>	16
이은희	나다운 삶으로 이끄는 안내자 <반줄>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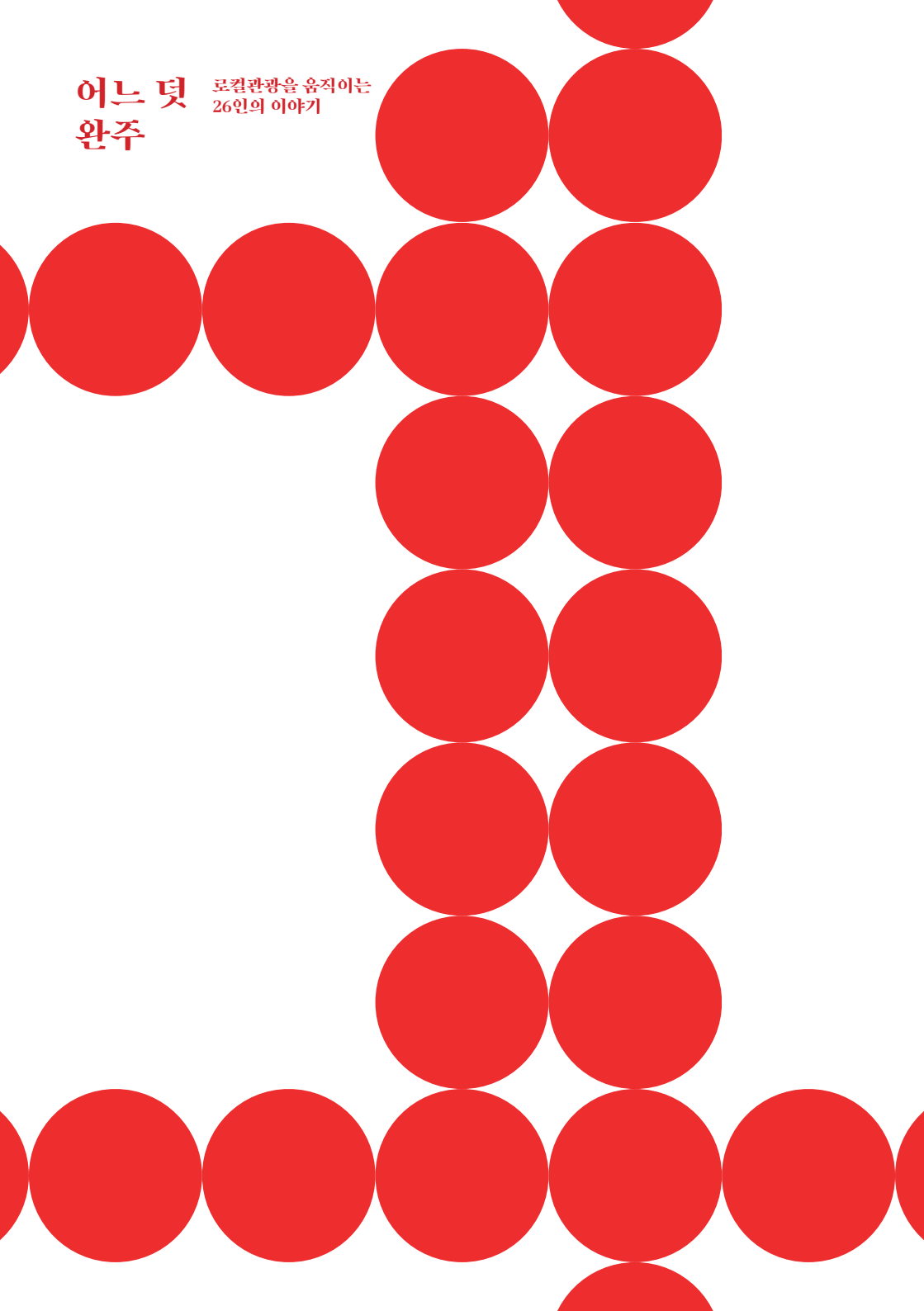
손안나	만경강지킴이에서 문화기획자로 <로컬콘텐츠연구소>	26
최대옥	이 시대의 청년이 사는 법, <해봄교육공동체>	30
윤수연	젯더미 위에서 다시 피어난 기적의 공간 <백당아트갤러리>	34
이용규	작은 이야기를 모아 지역을 비추다 <미디어공동체 완두콩협동조합>	38
홍수정	로컬브랜드의 가치를 디자인하다 <브랜드링바바>	42
홍유진	삼례에 빛을 밝혀요 <홍스테이·홍식당>	48
이문희	한옥에서 힐링을 나누다 <소양고택>	52

정선진	건강한 농촌 철학 <본앤하이리>	56
임보령	예술로 시작해 맛으로 완성하다 <비비정가>	60
박하숨	완주를 대표하는 로컬푸드를 꿈꾸며 <그린킵>	64
조자영	고산에서 시작된 자매의 건강한 아침 <고산의 아침>	68
전수미	전통과 혁신을 잇는 막걸리 <눈부신자연애>	72
박선영	완주의 맛과 마음을 담다 <영농조합법인미르>	76
김현화&김용현	완주 귀촌 부부의 빵 이야기 <와앙(come&bite)>	80
김수연	숲속에서 피어난 문화와 상생의 공간 <카페 애드리브>	84

송미나	기획의 무대를 완주에서 열다 <새로기획>	90
김은혜	완주에서 유행을 디자인하다 <보보하랑>	94
송효웅	완주에서 마음의 불을 밝히다 <다움스테이>	98
전별	로컬의 가치를 밝히다 <전스비주얼랩>	102
정미영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복합문화공간 <아원고택>	106
전재홍	미래 에너지로 나아가는 길 <AES테크>	110
이은경	사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완주 <완주문화재단 이은경 국장>	114

어느 덧 완주

로컬관광을 움직이는
26인의 이야기



배움에서 피어나다

01. 소영섭	시대를 관통하는 사진 예술가 <소영섭>	08
02. 진정욱	도예의 길에서 찾은 희망을 찾다 <봉강요>	12
03. 신선하	글씨로 살아보는 날들 <나날글씨공작소>	16
04. 이은희	나다운 삶으로 이끄는 안내자 <반줄>	20

사진 예술로, 시대를 관통하다

눈으로 세상을
이해하다



그는 늦게 사진을 배웠다.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사진을 만지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흠뻑 빠졌다. 마음에 드는 피사체를 발견하고 셔터를 누르고 있으면 마냥 행복했다. 하나씩 이론을 배우면서 현장 사진 실습에 대한 갈급함이 심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주변을 돌아보게 됐다. 그러자 한때는 누군가의 추억이었고, 기쁨이었고, 행복한 공간이었던 빈집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부터 그는 빈집을 찍는 사진가, 도시재생에 관심을 갖는 사진가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바로 오름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소영섭 작가다.

그의 사진은 빈집이 주는 아련함, 그리고 빈집을 포함한 구도심의 마을 이야기를 주로 다룬다. 소영섭 작가는 황폐화된 공간 속에서도 따뜻하고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를 사진으로 기록한다. 그는 새로운 것, 세련된 것, 그럴싸한 것에 눈길이 쉽게 가는 세상 대신에 우직하게 주변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사진에 담는 데 주력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신의 관심 영역을 동네와 이웃, 그리고 우리 주변으로 시야를 넓히기 시작했다.

사람에게 공간은 그가 머물렀던 흔적이자 그의 삶의 터전이고 기억들이 살아 숨 쉬는 집합체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공간을 떠나서 살 수 없으며 공간이 낳은 자식들이라 할 수 있다. 소영섭 작가의 사진을 채우는 것은 그 공간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들이다. 그의 사진에는 사람과 공간이 맺어온 따뜻한 관계와 그 기억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관계의 시학을 정립하다

그는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관계가 갖는 의미를 재정립하고 있다. 그는 첫 번째 실험적인 발걸음을 지역에서 사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과 소규모 활동을 하는 데서 시작했다. 삼천 문화센터에서 맺어진 인연들이 <마을 여행자들>이라는 이름의 단체로 연결되고, 벌써 다섯 번째 전시회를 진행할 정도로 탄탄하게 이어졌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작가 정신이라기보다는 평범함 속에서 느껴지는 소소한 행복들, 그리고 그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진짜 삶의 이야기들이다. 그는 사진을 알게 되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삶의 활력을 주지 않을까를 고민한다. 그 진심을 알기에 <마을 여행자들> 모임도 3년째 이어가고 있다.

올해 그는 효자생활문화센터에서 <사진과 함께 떠나는 여행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부분의 인문학 강의가 강의로만 끝나는 것과 달리, 이번 프로그램은 사진전과 도록까지 제작하며 차별화를 이루었다. 그의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없었다라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덕분에 삼천에 이어 효자생활문화센터에서도 사진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새로운 모임을 만들게 되었다.

그는 이와 같이 작은 관계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사회를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 믿음으로 그는 바쁜 와중에도 동호회 사람들을 끔찍이 챙긴다. 그리고 그들이 사진작가로 독자적으로 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다.



지역의 이야기를 그려낸다

최근 그의 관계의 시학은 아카이빙 쪽으로 확장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그는 완주 DMO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완주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해오고 있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마을의 기록, 새로운 사업의 시작과 성장과정, 선진지 견학 등 완주 DMO 사업의 주요 성과를 기록하면서 그 역시 성장하는 중이다. 그의 손을 거쳐 완주에서 행해진 수많은 프로젝트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세상에 나왔다.

옆에서 그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대부분의 과업을 하는 작가들은 한두 시간만 사진을 찍고 빠지기 마련이다. 단가가 과업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 전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그림만 나오면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자리를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소 작가는 다르다. 그는 행사 전에 미리 가서 동선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행사 시간 외에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서 살뜰하게 챙긴다. 같은 프로그램을 찍더라도 소 작가의 사진과 영상이 돋보이는 이유다. 당연히 기업이나 기관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고 다시 찾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그는 최근에는 하루에 적게는 3개, 많게는 6개의 일정을 소화한다. 옆에서 지켜보는 이가 현기증이 날 만큼 살벌한 스케줄이다.



주변에서 대충하라는 조언을 해주지만 그는 그 말을 흘려듣는다. 스스로 밝히기를 작품의 완성도에 욕심이 있다고 말할 정도다. 하루 행사에 많게는 5천 장까지 사진을 찍기도 한다. 그런데 그 사진을 다 쓸 수 없으니 그 사진 중에 꼭 필요한 사진만 고르거나 영상으로 쓰기 위해서는 편집을 다시 해야 한다.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는 그 작업을 새벽 1시 2시,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한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그 우직함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진이 주는 진정성의 힘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걱정스러운 말을 보더라도 그는 손사래를 치며 너털웃음을 지을 뿐이다.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달려간다.

신기술로 영역을 확장하다

최근 그는 AI 교육과 지역 문화 예술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전공이 컴퓨터 공학이라 그런지 컴퓨터를 다루는 데 익숙하다 보니 시대 대세라는 AI에 자연스럽게 눈길이 갔다. 주변 사진 작가들에게 최신 흐름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다들 시큰둥해 하며 작가 정신만 얘기한다면서 탄식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다.

사실 사진만큼 작가 정신을 요구하는 직업도 흔치 않을 것이다. 내가 아는 이의 경우, 마음에 드는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서 10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다고 했다. 마음에 드는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 수많은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순간 포착을 위해서 늘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사진이 아직도 독보적인 장인정신의 장로로 남아있는 이유이다. 하지만 최근 텍스트로 그림이나 사진을 만들어주는 시가 등장하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이전이라면 모델이나 실제 사물을 촬영한 것을 토대로 후속 작업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세상이다.

올해 그는 발 빠르게 대응한 덕인지 효자생활문화센터,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완주 역량강화사업단 등에서 AI 관련 강의를 진행하는 행운을 누렸다. 그는 이러한 변화들을 바탕으로 일반인들과 접점을 찾고 좀 더 많은 이들이 사진이 주는 매력에 흠뻑 빠지기를 기대한다.



삶의 빈틈을 채우다

우리가 사는 삶의 갈피갈피에는 수많은 장면이 존재한다. 어떤 이는 사진으로 찍고 어떤 이는 마음에 그걸 새긴다. 어찌 보면 소영섭 작가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아련함과 그리움을 사진이란 매체를 통해 세상에 소개하고 싶은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가 <완주는 낯설입니다>에서 보여줬던 완주 사진들은 보고 싶노라면 따뜻하면서도 마음의 여운을 진하게 남긴다.

그는 올해만 해도 여러 차례 전시회와 국제 사진전에 초청을 받아 참여했다. 앞으로 그가 사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선사할지 궁금해진다. 앞으로 사람들은 소 작가를 어떤 작가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우직함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의 진정성과 따뜻함이 아직도 세상에 필요하다.

도예의 길에서 희망을 찾다



운명처럼 만난 도예의 길

2000년, 눈 덮인 길에서 우연히 마주한 공간이 진정욱 명장의 인생을 바꿨다. 바로 오늘날의 <봉강요>자리다. 대학생이었던 그는 이곳을 보고 여기다하는 확신이 들었고, 그 후로 도예의 길을 걸어왔다. 이 운명적인 만남은 그의 도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그가 이곳에서 혼을 불어 넣어 작품을 제작하고, 도예가로서의 꿈을 키웠기 때문이다.

자기만의 공방 터를 찾던 그의 눈에 들어온 위봉사 자락은 안온하면서도 편안하게 그를 맞아주었다. 그렇게 그는 위봉사 말사처럼 자신의 공방을 들였고, 자식 같은 작품들을 만들며 세월의 무게를 견뎠다. 이곳에서의 꾸준하면서도 창의적인 작업 덕분에 전북 명장의 칭호를 얻었고, 국무총리상 수상 등 도예가로서도 걸출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는 이게 다 좋은 자리를 택한 덕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도예가에게 흙은 말이자 글이며 음악이다

대학 신입생 시절, 진정욱 명장은 선배들이 졸업작품전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물레에 매료되었다. 시작은 미미했다. 처음 도자기를 제작하기 위해 흙을 만졌을 때 온몸으로 전해지던 느낌은 아무 희망도 없던 그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처음 물레를 잡았음에도 그가 만든 작품에 선배들은 호평 일색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무의미하게 보내던 신입생의 틈을 벗고 졸업작품전을 준비하는 선배들처럼 밤을 새워 작품에 치열하게 매진한다.

본격적으로 도예를 전공으로 선택하면서 남들과 다른 길을 걷고 싶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장작가마를 굳이 택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장작가마는 작품을 굽는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다들 꺼린다. 일단 가마 작업은 까다롭고 힘들다. 당연히 시간과 공력도 많이 든다.



불꽃 속에서 다져진 도예의 길

장작 가마에 어떤 장작을 쓰느냐, 어떻게 불 온도를 조절하느냐 등에 따라 작품은 빛을 발하기도 하지만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수명을 다하기도 한다. 이전까지 아무리 공들여 마음에 드는 작품을 만들어도 가마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같은 가마에서 구운 작품이라도 균일한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도예계에서는 장작가마 작업을 신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일도 있다.

전문적으로 스승에게 사사하는 게 아니다 보니 아는 도예가의 가마에서 일을 도와 주면서 결눈질로 익힌 뒤 자신의 가마에서 실습을 하는 식이었다. 당연히 성공보다는 실패가 잦았고, 좌절했던 적도 많았다. 남들은 고생을 왜 사서 하느냐고 눈치를 주었지만 그는 자신의 땀과 눈물이 가마에서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한 번씩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상당한 물량을 작업해야 하고, 최종 결과물이 흠족하지 않은 날도 있었지만 그 과정이 그에게는 수행과 같았다. 그렇게 시작한 도예 25년. 그는 흔한 결눈 한 번 주지 않고 우직하게 도예의 길을 걸어왔다.

**작업 인생의 대변혁,
인화문 문자도
대접시**

그는 도예의 맛을 알아갈 무렵, 군에 입대를 했다. 군에서 복무하는 동안에도 흙과 물레가 눈에 아른거렸다. 휴가 나올 때면 남들처럼 유흥에 빠지기보다 작업실을 먼저 찾았다. 물레가 돌 때마다 흙덩이가 도자기로 변해가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서 삶의 희열을 느꼈다.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하던 작업이었지만 늘 일정 부분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었다. 그가 새로운 작품 제작을 시도했던 것도 그러한 갈급함 때문이었다. 2019년 무렵, 그의 도예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 발생한다. 바로 인화문 문자도 대접시를 작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8점 연작 형태로 작업한 이 작품의 제작 과정이 만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작업과정에서 실패도 많았지만 고생한 만큼 성과도 컸다. 그에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와 함께 도예가로서의 명성도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



지역의 뿌리를 알아가는 과정, 분청사기

완주에서 활동하는 작가로서 그가 고민했던 부분은 도예작가로서의 정체성이었다. 마침 그 무렵 완주에서 분청사기 가마터가 발굴되었다. 그에게는 분청사기는 지역의 대표성과 자신의 정체성을 연결해 주는 고리였다. 평소에도 분청사기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하늘이 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그는 한동안 분청사기에 폭 빠져 살았다.

그의 지역에 대한 남다른 관심은 오늘날 <봉강요>의 대표 상품인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의 기반이 되었다. 도자기 체험이 학생들의 여린 감수성을 자극하는 한편, 직장인들에게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치유와 힐링의 통로가 되리라는 믿을 때문이었다. 이렇게 시작한 체험 프로그램의 인연으로 든든한 후원자이자 작업에 관심을 가져 주는 가족 같은 지인들을 얻게 되었다.

어린이이 손을 잡고 체험 프로그램을 찾았던 가족은 시간이 지나자 식구가 늘어 다시 왔다. 아이가 결혼하여 다시 자기 아이와 함께 오기도 했다. 이제는 가족이나 마찬가지로 그들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그는 도자기 인생에서는 깨닫지 못했던 보람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덕분에 2024년에는 <봉강요>가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 치유관광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꿈을 이어, 세상과 나누다

25년을 묵묵히 <봉강요>에서 한자리를 지켜온 진정욱 명장의 꿈은 후학을 양성할 수 있는 전수관을 건립하는 일이다. 그는 이 공간에서 흙을 진짜로 좋아하는 이들이 마음껏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지역 공예인과 상생하는 모습을 꿈꾼다. 또한, 순창 이음학교의 발달장애학생들과의 특별한 만남처럼 사회 소외자나 사각 지대에 처한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기획 중이다. 나아가 일본과 중국 등 외국 도예가들과 지역 공예인이 참여하는 심포지엄도 개최할 생각이다.

그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완주 공예인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심고자 한다. 매 순간 현실의 벽을 뛰어넘으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그의 모습은 후배들에게 강렬한 영감을 선사한다.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오늘도 그는 더 큰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중이다.



글씨로 살아보는 날들



내가 나로 살아가는 방법

셋째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간 날, 신선하 대표는 곧장 문화센터로 달려갔다. 오랜 시간 엄마라는 역할에 집중했던 삶에서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빠른 마감으로 인해 들어갈 수 있는 수업은 오직 캘리그래피 한 자리. 그렇게 우연히 만난 캘리그래피는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어느새 새벽까지 글씨를 쓰며 몰입하는 나날이 이어졌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만큼 두근거렸다.

이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새벽 6시 수업을 1년 내내 개근하며 글씨 공부에 빠져 들었고, 남편 회사 동료의 의뢰로 만든 엽서 한 장이 처음 세상에 선보인 작품이었다. 수백 번을 쓰고 단 한 장을 건져냈을 때의 부딪힘은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

나날글씨공작소, 첫 번째 연결

첫 수업은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의 재능공유클래스를 통해 열었다. 재료비만 지원 받고, 장소는 직접 선택하는 방식. 우연히 고른 공방 카페는 예전에 아이들과 수업을 들었던 도자 공예 강사님이 운영하는 곳이었고, 그 인연은 완주의 공예강사 공동체와도 연결되었다. 그렇게 강사라는 두 번째 이름이 시작되었다.

"이 재미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수업을 열었고, 그 안에서 관계가 생겨 서로를 지지하는 네트워크가 자라났다. 지금의 나날글씨공작소는 그 연결의 결과물이다.



있는 글씨, 나누는 마음

2025년 6월, 회원들과 함께 첫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 제목은 마음을 잇는 글씨. 각자의 이야기와 감정이 담긴 캘리그라피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고, 그 진심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되었다. 어떤 관람객은 "이런 작품은 처음 본다"며 감동을 표현했고, 한 외국인 관광객은 전시장 포스터를 가져가고 싶다고 말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신 대표는 자신의 글씨가 언어와 국적을 넘어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다. 전시가 끝난 후, 한 참가자가 "선생님 아니었으면 이런 경험 못 했을 거예요"라고 전한 말도 대표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다.

회원 중에는 딸에게 바치는 글로 작업한 분도 있었다. 가족과 함께 눈물 흘리며 전시를 마주한 그 장면은 단순한 수업 이상이었다. 개인의 이야기가 작품이 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 순간들은 신 대표가 이 길을 계속 걷게 하는 힘이다.

배움과 예술의 경계에서

글씨를 쓰다 보면 끝이 없다. 더 알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서예문화학과 대학원에 진학했다. 한글 서예와 전각 등 전통 예술을 배우며, 이제는 문자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일에도 깊이 빠져들고 있다. 붓과 먹, 돌과 칼 사이에서 오롯이 나로 존재하는 시간은 특별하다.

한글서예가 국가무형 유산으로 지정된 지금, 나는 이 소중한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싶다. 전통의 마감과 현대의 감성을 잇는 서체를 연구하고, 문장과 그림을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글자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감정과 이야기, 예술이 공존하는 형태로 확장되길 바란다.

앞으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체, 그림, 문장을 엮어 세 번의 감동을 주는 책을 만드는 것이 개인적인 목표다. 그 책 안에는 일상의 감정과 위로, 씬이 고스란히 담겨, 누군가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처럼 전해지길 바란다.



사람, 글씨, 완주

혁신도시에 작업실을 마련한 건 실용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완주라는 지역이 주는 정서도 컸다. 글씨를 하면서 완주의 자연과 사람, 환경에 대해 다시 보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한글 서예를 가르치는 출강 활동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지역과 연계한 교육 콘텐츠 기획까지 확장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

최근에는 DMO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여행 기획에도 참여했다. 완주의 다양한 자원을 소개하고, 지역 콘텐츠를 학교 교육과 연계하는 작업이었다. 과거 이러한 기획과 교육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글씨를 매개로 다양한 프로젝트로 확장하는 중이다.



기대되는 내일, 감사한 오늘

요즘 가장 자주 떠올리는 상상은 내년의 나는 어디에 있을까?다. 글씨를 시작하고 나서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손끝에서 이어지는 획 하나가 사람과 사람을 잇고, 새로운 기회를 불러왔다. 날마다 새롭고, 또 재미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붙은 이름, 나날글씨공작소. 물 위에 던진 조약돌처럼, 어디로 튈지 몰라도 파장이 이어지는 하루하루가 쉼낸다.

신 대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감사다. 이 길 위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글씨를 통해 만나고 연결된 인연들, 그리고 다시 나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들. 단순한 취미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삶을 표현하는 언어가 되었다. 누구의 기준도 아닌, 나만의 리듬으로, 한 획 한 획 써 내려가는 오늘의 삶이 계속되기를.



나다운 삶으로 이끄는 안내자



완주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

이은희 대표는 이안아라는 활동명으로 명상과 요가, 심잉볼, 보이차담 등을 결합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의 삶을 정리하고 완주로 귀촌한 지 어느덧 8년. 처음엔 예술인 친구들과 함께 도모하며 활동을 이어가다, 코로나를 겪으며 마음을 돌보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 그 변화 속에서 명상과 심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완주는 이 대표에게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곳이다. 먼저 자리 잡은 예술인 친구들이 이곳에 있었고, 그들의 초대로 계기로 완주로 방문했다. 고민 없이 이사를 결심하게 만든 건 사람들이다. 완주를 찾았을 때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분위기, 편안한 관계가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



공간을 수련의 장으로



완주 내에서 규모와 방향에 따라 공간을 달리 활용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터뷰를 진행한 공간은 수업 장소이자 수련의 장이다. 명상은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게 흘러가는 여정이기에, 늘 자신의 상태를 먼저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따로 수업을 준비하지 않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사람을 맞이하고 안내하기 위해선 먼저 자기 자신이 수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다.

그에게 공간은 단순히 수업 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다. 몸과 마음이 머무는 동안, 그곳은 자연스럽게 수련의 장이 된다. 하루의 빛과 온도, 사람의 호흡과 마음결이 얹혀 새로운 기운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는 공간이 사람을 닮고, 사람 또한 공간을 닮아간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곳의 수련은 단지 명상의 시간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 그리고 공간이 서로를 비추며 성장하는 과정이다. 결국 공간은 가르침의 무대가 아니라, 존재를 다듬는 살아있는 수행의 장으로 완성된다.

사람, 그리고 연결의 힘

명상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늘 새롭다. 숨을 쉬는 법조차 잊고 살아가던 이들이 깊은 감각을 회복하는 순간, 이 대표는 다시 초심을 떠올린다. 특히 오랜 삶을 살아온 이들과의 만남은 쉽지 않지만 깊다. 이미 굳어진 생각 속에 작은 틈을 만들고,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과정은 때로는 버겁지만, 그만큼 배움도 크다.

명상을 가볍게 소비되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하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포장을 거두고 진심으로 다가갈 때, 그 에너지가 전해진다고 믿는다. 단단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에 균열이 아닌 울림을 남기고 싶다는 바람이 있다.

꾸밈없이 존재하는 일

이 대표는 어떤 척을 하지 않는다.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반인을 상대로 명상을 안내하는 일을 사업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우려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숨을 쉬듯 누구나 할 수 있는 명상이 왜 어렵게 여겨져야 하는지 되묻는다. 포맷을 만들어 보여주는 형태로 만들되, 진정성은 흐려지지 않도록 단단히 중심을 잡아 왔다.

함께 살아가는 생명, 친구, 사람들에 대한 애정은 이 대표의 중심 동력이다. 자신만의 성장이 아닌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방식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살아감이라 여긴다. 느리게, 천천히 가는 삶이 오히려 더 큰 에너지를 만든다는 철학은 그가 명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건네고자 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마을에서의 실험, 여행으로 치유를 짓다

DMO 사업을 통해 이 대표는 <쉼>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역과 관광을 잇는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위케이션 프로그램에서는 차를 마시거나, 움직이거나, 향을 맡고 소리를 듣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바라보도록 구성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자 다른 힐링의 방식을 존중하며 진행한 시간이었다.

또한 마을 세 곳을 선정해 치유형 관광 콘텐츠를 기획하고 실행했다. 하드웨어는 있지만 콘텐츠가 부족한 마을과 협업해, 지역의 일상과 심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여행을 통해 마을이 자신을 돌아보고, 방문객과의 교류 속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기획과 안내를 맡았다.

쉽이라는 경험을 전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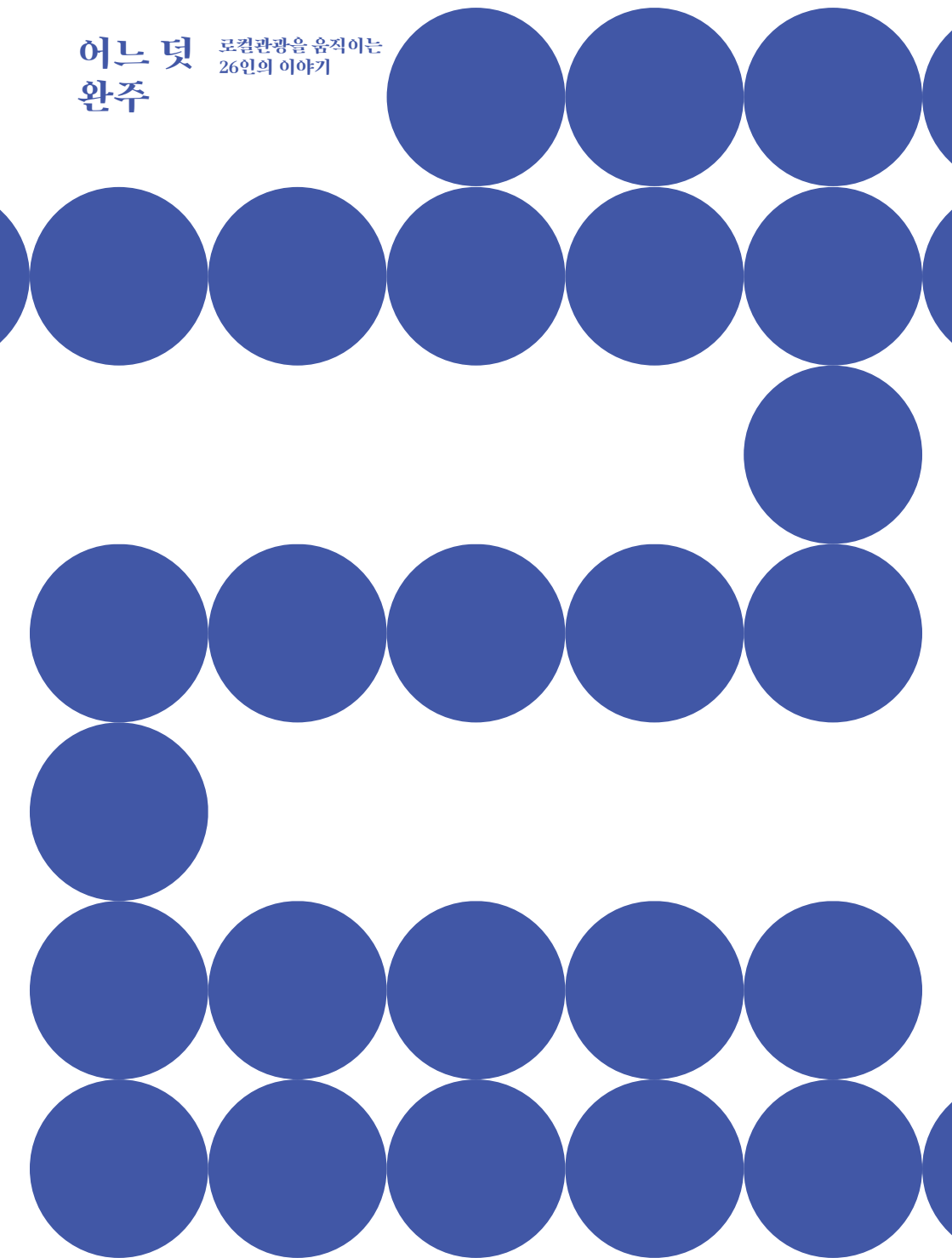
이 대표는 사람들이 반줄을 찾았을 때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란다. 싱잉볼의 파동, 천연 오일의 향기, 차 한 잔의 여유.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쉽이 되고, 그 경험이 다시 삶의 에너지가 되도록 안내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변수와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려 한다. 삶의 방향은 언제나 한결같다. 누구든 잠시 머물며 숨을 고르고,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작은 공동체. 명상과 침, 치유와 예술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공간. 그곳이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이 대표는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꿈꾸고 있다.



어느 덧 완주

로컬관광을 움직이는
26인의 이야기



문화로 움직이다

05.	손안나	만경강 지킴이에서 문화기획자로 <로컬콘텐츠연구소>	26
06.	최대욱	이 시대의 청년이 사는 법, <해봄교육공동체>	30
07.	윤수연	젯더미 위에서 다시 피어난 기적의 공간 <백당아트갤러리>	34
08.	이용규	작은 이야기를 모아 지역을 비추다 <미디어공동체 완두콩협동조합>	38
09.	홍수정	로컬브랜드의 가치를 디자인하다 <브랜딩바바>	42
10.	홍유진	삼례에 빛을 밝혀요 <홍스테이 · 홍식당>	48
11.	이문희	한옥에서 힐링을 나누다 <소양고택>	52

만경강 지킴이에서 문화기획자로



인생의 이정표가 된 문화해설사

해외 발령을 받은 남편 따라 해외생활을 했다. 돌아올 무렵 한국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우연히 아리랑TV에서 문화유산해설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바로 이거다 싶었다. 그렇게 손안나 로컬콘텐츠연구소 대표의 제2의 인생은 문화라는 이름과 함께 시작되었다.

한국에 돌아와 궁궐로, 숲으로, 현충원으로 문화와 관련한 일을 즐기다 보니 문화야말로 진짜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한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아닌 문화를 어떻게 풀어갈까를 고민하다 보니 주변에서 문화기획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사람들과 문화 이야기를 나누고 답사를 다니는 일은 항상 즐겁고 새로웠다. 무기력했던 삶에서 벗어나 사는 재미가 쏠쏠했다.

위기는 코로나와 함께 왔다. 코로나가 절정일 때는 사람들 사이에 왕래만이 아니라 단체 활동 자체가 불가능했다. 문화 관련 활동이 전국적으로 중단되었다. 그때 고향 전북에서는 길이 보였다. 그동안 서울과 전북을 오가면서 강의를 했던 게 큰 덕을 보았다. 이후 남편이 해외로 발령을 받으면서 갑작스럽게 우울증이 몰려왔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다가오는 바람에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이었다. 손 대표에게는 절대적인 탈출구가 필요했다. 그렇게 만난 게 만경강이었다.

내 인생에 만경강이 들어왔다

2017년 <만경강 아카데미>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만경강을 걸으며 그곳의 매력을 조금씩 알아갔다. 이후 만경강 사랑지킴이를 만들고 몇 년 동안 만경강을 살살이 즐겼다. 사람들이 만경강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대한 서운함도 있었지만 이 매력을 혼자만 보기에 아깝다는 생각도 컸기 때문이다. 그렇게 뜻이 맞는 사람들과 만경강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많이 배우고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걷기 좋은 만경강 8코스를 발굴한 것은 작은 기쁨이었다. 손 대표가 만경강을 걸으면서 가장 컸던 즐거움은 지역민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던 사람들도 함께 걸으면서 만경강의 생태, 역사, 자연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었다. 얼마 전부터 손 대표는 완주에 처음 부임한 교사들에게 완주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었다. 자연스럽게 <완주를 걷다. 골목을 걷다>라는 책도 내게 되었다.

완주의 멋스러움에 눈을 뜬 이들은 손 대표를 학교 현장으로 불렀다. 그렇게 아이들과 어른들이 어우러지는 진짜 만경강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쌓인 이야기들은 완주군내 각 읍면의 대표적 마을을 소개하는 <나무가 들려주는 마을 이야기>라는 책으로 나왔다. 덕분에 완주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만경강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다. 또한 DMO사업의 일환으로 <만경강에 공룡이 나타났다!>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삼례 하루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한 이 프로그램은 상생의 장이 되었고, 지역민과 방문객이 어우러지는 경험을 만들며 완주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전북의 8개의 빛깔을 만나다

2020년 손 대표는 생생문화재활용사업에 선정되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몇 개를 돌렸다. 사람들과 임진왜란과 동학농민전쟁의 격전지였던 웅치와 이치를 돌아보면서 역사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다. 완주 선죽교(하리교)에서부터 비비정 열차카페까지 걷는 구간은 매회차마다 사람들의 신청이 순식간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완주한 사람들과 노을을 보면서 뒤풀이를 즐기는 것도 이 프로그램만의 특별한 재미였다. 이후에도 손 대표는 만경강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올해 손 대표는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파일럿 프로그램을 8개나 진행했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던 팸투어와 K-컬처에 대한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평소 남들이 다니는 흔한 관광지 대신 로컬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토속적이고 한국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한국 음식 체험, 한지 뜨기 등에 대해 참가자들의 기대 이상의 호응이 이어졌다.

지역의 토산물과 자원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세계화가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던 순간이었다. 올해는 로컬콘텐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손 대표로서는 외형이나 내실면에서 한 단계 더 성장했던 한 해였다. 군산, 김제, 부안을 수시로 떠나 들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로컬을 배경으로 한 관광상품의 가능성을 확인했던 건 보이지 않는 수확이었다.

여행작가 대상의 여행도 기획과 교육자 대상의 관광도 뜨거운 호응과 찬사를 받았던 프로그램이다. 사람들이 지역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고, 지역의 맛에 감탄을 자아낼 때 손 대표는 기획자이자 실천가로서 뿌듯함을 맛볼 수 있었다. 그녀에게 올해는 뜻을 같이 하는 크루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역 관광의 가능성을 재확인했던 한 해였다.

더 그리워지는 것들과의 만남

최근 몇 년 동안은 손 대표는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실천하느라 정신없이 보낼 수밖에 없었다. 지역에서 기획자는 고달프다. 심지어는 본격적인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사전 답사비조차 행길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열정 페이라는 말이 우리 문화계에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도 문화 볼모지라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완주 DMO처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건 반가운 사실이다. 그동안 완주 DMO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선진지 견학이 손 대표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자극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업체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실력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손 대표는 자신의 문화 활동의 원동력과 자산이 만경강이라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 그녀에게 만경강은 치유라는 이름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며, 또한 끊임없는 창작의 모티브이기도 하다. 그 자신이 실제로 만경강을 걸으면서 우울증을 치유할 수 있었고, 함께 했던 많은 이들이 힐링 받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손 대표는 사람들에게 만경강도 좀 더 알리고 싶고, 그동안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하고 싶은 바람도 있다. 최근에 다녀왔던 <수류금산 순례> 길도 더 다듬어서 한국의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만들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다. 지역에 이렇게 풍부한 역사를 안고 있는 소중한 문화 자산이 사람들의 관심권 밖으로 사라진다는 사실이 안타깝기 때문이다. 그녀가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역 살리기에 진심인 이유이기도 하다.

문화는 거저 오지 않는다.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수고로움,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곁들여져야 비로소 문화는 우리에게 온다. 이 가을에는 우리 지역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지역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지역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갈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지역민으로서 나답게 사는 첫걸음일 수 있다.



이 시대의 청년이 사는 법



고민만 하기에는 청춘이 너무 짧다

완주군 구이에는 눈 밝은 여섯 청년이 산다. 구이에 터전을 둔 교육공동체 〈해봄〉 이야기이다. 사회복지, 상담심리, 조형예술, 청년활동가 등 전공도 성격도 다른 청년들이 의기가 투합해서 오늘날까지 한 길을 걸어왔다. 단체명인 〈해봄〉의 뜻 역시 "일단 해보자!"라는 도전정신을 담고 있다.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위기 시대를 살고 있다. 직장도 결혼도 삶도 결코 만만하지 않다. 20대 청년층의 구직 포기율이 사상 최고라는 시대에 완주를 지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반가웠다. 게다가 그들의 주된 관심 타깃층이 장애인과 고령의 어르신들이라니 이게 웬일인가 싶다.

선한 눈매를 지닌 〈해봄〉 최대욱 대표는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택한 이유를 담담하게 말한다.



인생의 터닝포인트, 호주 워킹 홀리데이

직장을 다니던 최 대표는 무리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늦은 나이에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난다. 큰 기대 없이 떠난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한 생각을 다잡게 되었다. 광활한 땅에서 기대도 컸지만 밤이면 찾아드는 외로움을 견디는 일 자체가 고통이었다.

낯선 곳에서 홀로 남겨졌을 때, 그 막막함을 아직도 기억하는 그는 그 때문에 지역의 소외대상에 더 공감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또 다른 변화는 개방적인 문화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한때 영어 올림종으로 타국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던 그에게 워킹 홀리데이가 보약과 같은 선물로 돌아온 셈이다.

그 때문인지 그는 한국에 돌아온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도 늘 시선은 우리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소외받는 이웃에게 향했다. 그들의 아픔을 서류가 아니라 눈 앞에서 지켜보면서 그는 인생 최대의 승부수를 던진다. 지인들과 <해봄>을 창업하게 된 것이다.



기획자로 살아간다는 의미

그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역의 청년창업가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직면하게 되었다. 이제 막 사업의 길에 들어선 청춘은 모든 게 힘들기 마련이다. 그는 여기에 착안하여 완주군에 <완주청년맥주축제>를 기획하고 제안했다. 청년창업가들의 고민을 분출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리라는 현실적인 고민과 청년문화의 구심점을 찾기 위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청년맥주축제>는 이제는 이름을 바꿔 <일맥상통>으로 불린다. 비록 이름은 바뀌었지만 "한 잔의 맥주로 서로가 통하다"라는 취지 자체는 달라진 게 없다. 다행히도 첫해 2,000여 명이 찾았던 축제는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그가 단순한 재미가 아닌 청년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춘 결과였다.

작년 가을, 완주DMO사업의 일환으로 그는 삼례에서 열린 첫 번째 치맥축제 <치맥하삼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역의 청년과 주민이 함께 참여한 축제는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었고, 그에게도 남다른 의미로 남았다. 첫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참여한 만큼 더 애착이 갔고, 앞으로 이 축제가 완주의 새로운 미식관광 축제로 자리 잡길 기대하고 있다.

아이들만 보고 갑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발달장애 아동 교육 프로그램이다. 처음 다른 이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았을 때 한숨부터 나왔다. 당시 수강생이 2명, 전임자는 폐업을 생각하고 있었다. 6개월 발품을 판 덕분에 8명, 1년 후에는 15명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남들은 운이 좋았다고 하지만 그가 위탁받은 청소년들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인 결과라는 걸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사회복지 관련일을 하는 사람 대개가 그렇지만 돈만 보고 했더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업을 맡는 순간부터 적자였기 때문이다. 학생수가 10명이 넘어서면서 그제야 한시름을 놓을 수 있었다. 덕분에 지금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체험형 예술 분야도 다루면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예산이 많지 않지만 아이들의 고민과 꿈을 담은 책도 발간하고 싶은 게 최 대표의 바람이다. 현재는 장애인 밴드를 구성하기 위해 회원을 모집 중이다. 그의 꿈은 순회 공연을 통해 장애인의 한계를 넘어서 당당한 시민으로서 인정받는 것이다. 그들의 연주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혼자가 아닌 더불어 걷는 즐거움

그는 완주 DMO와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완주 DMO를 통해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소중한 인연도 맺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DMO는 실력 향상의 계기이자 사업의 기회를 열어준 통로였다. 작년에 <여행을 완주하다>라는 제목으로 완주 북부권역(고산, 소양)과 남부권역(구이, 상관)에서 팸투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널리 알려진 맛집이 아닌 지역 맛집을 발굴하고, 현장 체험을 하며 진정한 완주를 맛보게 하기 위해 편성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경각산 패러글라이딩, 오성한옥마을, 대동밥 체험, 김치 만들기 체험, 대승한지마을 한지등 만들기 등이 주된 관심 대상이었다.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까다로울 수 있었음에도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완주의 수려한 풍경과 넉넉한 인심에 폭 빠졌다는 후일담이 있을 정도다.

그의 또 다른 자산은 현재 같이 일을 진행하는 동료들이다. 비슷한 나이 또래들이지만 관심사도 다양하고 능력도 제각각이다. 앞으로 그는 이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발굴할 예정이다. <해봄> 대표로서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완주가 갖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역량을 창업 회원들이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기대를 품고 있다.

가법지 않은 나눔

그가 활동하는 완주군 구이는 고령층이 많은 동네이다. 한반도 전역에서 고령사회 진입이 빨라지는 시점에서 그는 고민이 많다. 봉사의 한계점을 알기에 알찬 프로그램과 접목시켜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기 때문이다. 그는 적자인 사업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인간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말한다. 그가 믿었듯이 세상도 그를 믿어 주었고, 오늘날 <해봄>이 가능했다.

그는 한때 완주에서 K컬처 시그르 음식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다.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어르신들의 음식을 배우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경계를 허물고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의 꿈처럼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층이 스스름없이 어울리고 장애인들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일단 해보자는 <해봄>의 슬로건처럼 우리도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은 어떨까. 요란하고 거창한 응원도 아니더라도 그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만날 미래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날을 기대해 본다.



젯더미 위에서 다시 피어난 기적의 공간



절망 대신 희망을,
상처 위에 예술을
피워낸 곳



2016년 6월 12일, 전북 완주군 내아마을에 위치한 예술 공간에서 큰 화제가 발생했다. 이곳은 한국화가 백당 윤명호 화백과 그의 딸이자 플루티스트인 여니 윤수연 대표가 함께 만든 치유의 예술 공간이었다. 화제는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부녀는 좌절 대신 다시 시작을 선택했다.

윤 화백은 “공수래공수거”를 외쳤고, 여니 대표는 젯더미 위에서 플루트를 연주했다. 젯더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한 긍정의 부녀 모습은 KBS1 <인간극장 - 윤 화백이 웃던 날>을 통해 방송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했다. 그리고 기적처럼, 백당아트갤러리는 다시 세워졌다.



완주를 사랑하게 된 이유

공간을 새롭게 건축하며 여니 대표는 완주 지역에 더욱 깊은 애정을 품게 되었다. 완주 와일드 로컬푸드 축제에서 그녀는 재능기부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며 플루트를 연주했다. "저도 이제 완주 군민이 되었습니다"라고 외치며 반갑게 인사하고 소통했다. 이 모습을 계기로 세계 최초 피겨 플루티스트 여니 윤수연이 완주를 홍보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완주군은 그녀를 완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브랜드가 된 공간, 공정 에너지 충전소

백당아트갤러리는 단순한 문화공간을 넘어 감성과 치유가 공존하는 공정 에너지 충전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연 속에서 그림, 음악, 문학, 강의, 체험이 어우러지는 이곳은 지친 일상 속에서 쉼과 회복을 선사하는 특별한 공간이다. 완주의 풍경과 함께 하는 전시와 체험은 방문객들에게 예술을 넘어선 여행의 즐거움을 선사하며, 지역 관광의 매력을 더한다. 2026년부터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을 공정 에너지 충전의 날로 정해, 도시와 농촌, 세대와 세대를 잇는 문화 페스티벌도 계획 중이다. 완주를 찾는 여행자들이 문화와 자연을 동시에 경험하며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기억에 남는 방문객, 그리고 국경을 넘은 인연

많은 이들이 백당아트갤러리를 찾았지만, 가장 특별했던 만남은 독일 가족과의 인연이었다. KBS 방송을 보고 감동한 이들은 직접 한국까지 방문했고, 백당아트갤러리에서의 경험을 계기로 여니 대표를 유럽으로 초청했다. 그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니 저에게도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네요."라며 미소 지었다.

또한 아내의 암 수술을 앞둔 남편이, 긍정 가득한 이 공간에서 아내의 생일을 열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여니 대표는 망설임 없이 공간을 내어주었고, 가족은 소중한 시간을 긍정적인 파티로 보냈다. 수술은 기적처럼 성공했고, 남편은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다시 이곳을 찾아 고마움을 표현했다.

한편, 지인의 어머니가 남편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여니 대표는 아들에게 어머니를 향한 편지를 써오도록 했다. 어머니와 함께 공간을 찾은 그날, 아들의 편지 낭독과 여니 대표의 플루트 연주가 어머니의 마음을 열었다. 어머니는 "살면서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며 눈물을 흘렸다.





죽음을 넘어서는 긍정, 그리고 철학

여니 대표의 삶에도 한때 어둠이 있었다. 우울증과 죽음을 생각했던 시절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된다는 깨달음으로 삶을 다시 붙잡았다.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희망적인 말과 행동을 선택하는 긍정의 에너지가 있다면 기적은 반드시 찾아온다고 믿는다. 지금은 긍정 전도사로서 단 한 사람이라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책으로 남기는 회복의 여정

여니 대표는 지난 10년간 써온 기록을 바탕으로 <내 안의 나를 깨우는 긍정에너지>라는 책을 곧 출간할 예정이다. 이 책은 우울을 넘어 다시 삶을 품은 이야기, 사람들과의 소통, 그리고 백당아트갤러리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진심을 담은 회복과 성장의 여정이다.

작은 이야기를 모아 지역을 비추다



시작은 마을, 중심은 사람

완두콩협동조합의 이용규 대표는 18년간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와 편집자로 활동했다. 도시에서 지친 마음을 안고 2009년 아내와 함께 완주로 이주한 그는 자연에 가까운 삶을 선택하며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다.

신문사를 그만두고 화산면의 작은 마을 사무장을 맡으면서, 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전신인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이라는 확신을 얻었고, 2012년 지역 소식지를 창간하며 완두콩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역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

초기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했지만, 2013년 협동조합 기본법 통과 이후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함께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했다. 개인의 것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소식을 담는 매체로 거듭난 것이다.

완두콩이 주력하는 것은 완주다운 일상이다.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소식지는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아닌, 지역의 평범한 주민들이 주인공이다. "마을 어른들이 처음엔 왜 나를 취재하냐며 거절하시다가도, 나중엔 자기 이야기가 실린 걸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는 일화는 완두콩이 왜 소중한지를 잘 보여준다.

공간과 연결의 확장

현재 완두콩은 삼례 혁신파크 내에 자리하고 있다. 고산 창업보육센터에서 시작해 세 번째 보금자리다. 혁신파크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들과 인접해 있어, 지역 공동체와의 협업과 교류에 유리하다.

인쇄와 출판을 주로 하는 완두콩은 완주문화재단, 완주DMO 등 다양한 주체와 협업하며 각종 문화 행사나 프로젝트에도 함께하고 있다. DMO 축제, 삼례치맥하삼례, 소양 미디어 행사 등에 참여하며, 소식지를 통해 지역축제와 공동체 소식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완두콩은 단순한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지역 자원의 특성을 살려 기획력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중심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단지 행사의 진행이 아닌 그 지역 자원이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지 고민하고 연결하는 일에 힘을 쏟는다.

이용규 대표는 "방문자들이 잘 왔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완주만이 가진 콘텐츠를 정확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애정을 갖고 임하기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실수가 생기면 오히려 완성도 있게 마무리하기 위해 더 애를 쓰는 편이다. 그는 "규모나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지역 고유의 특성을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관건"이라며, 사람과 장소가 연결된 경험을 만드는 일을 진심으로 여긴다.



평범한 기록이 가진 힘

완두콩의 가장 큰 특징은 사소하고 평범한 기록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매체는 작지만, 이 기록이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자긍심이 된다. 전라도닷컴의 황풍년 발행인이 완두콩의 한 표지에서 눈발 속 배추를 옮기는 사진을 보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콘텐츠"라고 평가했다는 일화도 있다. 이용규 대표는 말한다. "지역주민은 자신이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일상을 비추는 조명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균형을 유지하며 버티는 일

완두콩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다. 이 대표는 매월 발간되는 소식지를 손에 찰 때 가장 큰 성취감을 느낀다. "몇천만 원 짜리 사업을 마칠 때보다 완두콩을 잘 만들어냈을 때 마음이 더 뿌듯하다"고 말한다.

다만 이상과 현실의 균형은 늘 고민이다. 콘텐츠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한다. 재정을 위해 애쓰는 시간이 콘텐츠 제작의 시간을 갉아먹기도 한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것, 같이 고생하는 조합원들과 함께 해내는 것, 그것이 완두콩의 정신"이라 강조한다.



오늘을 기록하는 태도

요즘은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 일상의 도구가 되었고, 디지털 변화가 눈부시다. 완두콩은 트렌드에 휩쓸리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에 집중한다. "기술은 따라가되, 인간적인 콘텐츠를 잃지 않겠다.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따뜻하고 유익하다면, 시대가 바뀌어도 그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완두콩의 활동은 장기 계획보다는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에 중심을 둔다. 거창한 목표 없이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쌓아간다. 이용규 대표는 "힘들 때마다 더 낮게, 더 작게 보자는 생각을 한다. 오히려 그 안에서 본질이 보인다"고 말한다. 그의 철학은 분명하다. 완주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기록하는 것, 그것이 완두콩의 존재 이유다.

로컬브랜드의 가치를 디자인하다



브랜드 가치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다

홍수정 대표가 운영하는 브랜드바바는 브랜드의 가치와 철학을 시각적으로 효과 있게 전달하는 아트 & 그래픽 디자인 전문 기업이다. 브랜딩, 편집 디자인, 일러스트 레이션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감성과 전략의 조화를 지향한다. 디자인을 단순한 시각 요소가 아닌, 브랜드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담아 고객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눈에 띄는 이미지를 넘어 브랜드와 고객이 만나는 순간의 경험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브랜드바바의 핵심 접근이다.

브랜드바바는 디자인이 곧 브랜드의 목소리라는 철학 아래, 고객 경험(CX)과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강화하는 전략적 디자인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브랜드가 지닌 고유한 이야기를 시각 언어로 풀어내고자 한다. 홍 대표는 진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으며, 표면적인 멋보다 본질에 집중하는 디자인을 추구한다. 이러한 작업은 특히 소규모나 지역 기반 브랜드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감정적 연결을 이끌어내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완주DMO와 함께하는 지역 브랜드 디자인

홍 대표가 완주와 인연을 맺은 건 2024년부터다. 완주DMO와 협력하며 지역 관광과 축제 홍보 디자인을 담당했다. 첫 작업은 치맥하삼레였고, 이어 소양 별빛주막 포스터 제작으로 시각적 정체성을 구축했다. 단순한 외주 작업이 아닌, 지역과의 협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축제의 분위기를 피부로 느끼는 과정은 그 자체로 디자인의 중요한 영감이 되었다.

2025년에는 완주삼례팔기대축제 디자인을 총괄하며 완주 대표 축제의 브랜딩을 강화했다. 축제의 상징성과 지역민의 정체성을 함께 담은 디자인은 완주라는 지역이 지닌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홍보 포스터뿐만 아니라 굿즈, 간판, 무대 시각 구성 등 전반적인 시각 언어를 일관되게 설계하며 브랜딩의 힘을 입증했다.

그에게 이 과정은 단순히 결과물을 만드는 일이 아니었다. 축제 현장의 활기와 지역 정서를 담아내는 경험이었고, 이를 통해 완주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지역민과 방문객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디자인

홍 대표가 특히 강조하는 지점은 지역의 고유한 색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완주의 역사와 풍경, 사람들의 삶을 반영한 디자인은 단순히 보기 좋은 이미지를 넘어 완주다움을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정서는 외부인이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홍 대표는 이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에서의 리서치와 대화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지역 특산물, 전통, 건축 양식, 말투 등 다양한 요소를 디자인의 키워드로 녹여낸다.

그는 디자인이 지역과 사람을 잇는 매개체라고 말한다. 방문객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지역민에게는 자긍심을 주는 것. 그 과정이야말로 브랜딩바바가 지향하는 디자인의 역할이다. 로컬이 가진 콘텐츠가 디자인을 통해 더 널리 알려지고, 새로운 문화 자산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어 지기를 바라고 있다.



단순함을 넘어서는 브랜딩의 힘

홍 대표가 브랜딩을 "브랜드와 소비자가 처음 만나는 얼굴"이라고 표현한다. 로고, 포스터, 그래픽 요소 하나하나에 브랜드의 스토리가 담겨야 하고, 그것이 곧 브랜드 경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디자이너가 단순히 예쁜 결과물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을 경계한다. 대신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설계하는 전략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디자인이 단순히 포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브랜드의 철학과 정체성을 생생한 경험으로 전하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브랜딩바바의 작업은 항상 전략과 감각, 그리고 이야기를 함께 담아내려 한다. 브랜딩의 목적은 결국 소비자와 브랜드가 장기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홍 대표의 지속성 있는 인상을 남기는 디자인을 목표로 한다.





로컬 브랜드 디자인의 비전

앞으로 브랜딩바바는 공공 디자인과 기업 브랜딩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디자인 전략을 통해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시할 계획이다.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 반응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각 전략을 보완하는 방향은 디자인의 새로운 흐름이기도 하다. 브랜딩바바는 감성과 데이터 사이의 균형을 통해 디자인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홍 대표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디자인"을 중시에 두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싶다고 말한다. 이는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브랜딩바바가 창립 때부터 지켜온 중심 가치이기도 하다. 디자인을 통한 지역 기여와 브랜드 성장이라는 두 축을 놓치지 않기 위해 꾸준히 내부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현재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며, 완주의 이야기가 더욱 풍성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 그가 내다보는 브랜딩바바의 방향이다.

홍 대표에게 브랜딩바바는 단순한 디자인 기업이 아니다. 브랜드와 소비자를 잇는 다리이자,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다. 그는 앞으로도 감성과 전략을 겸비한 디자인으로 브랜드와 지역을 연결하며, 완주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삼례에 빛을 밝혀요



홍스테이와의 운명적인 만남

한때 전공을 살려 일본으로 취업을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하필 코로나가 발목을 잡았다. 그러다가 본가가 있던 삼례로 눈길을 돌렸다. 그리고 운명처럼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홍스테이 자리를 만났다. 처음 사업을 하는 터라 막막하던 차에 삼례문화예술촌 반장을 비롯한 이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음식이 맛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 지금 홍식당의 시그니처 메뉴라 할 수 있는 명란감자전도 1년여 고민 끝에 나온 작품이다. 쉬워 보여도 맛있게 만들기 힘든 게 감자전이다. 특색 있는 메뉴를 고민하다가 대학시절 좋아하던 명란을 떠올렸고 이를 곁들인 감자전을 개발했다. 그 결과 지금은 사람들이 믿고 먹는 식당의 대표 메뉴로 자리 잡았다.

마음이 허전하거나 느긋한 여행을 원하는 이들이 게스트하우스인 홍스테이에 머물렀고 힐링을 맛보며 떠나갔다. 그들과 허심탄회하게 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업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삼례에서 홍식당과 홍스테이를 운영하는 홍유진 대표 이야기이다.

올해 동생이 합류하면서 홍스테이 운영에 많은 힘을 얻었다. 그동안 홍 대표는 혼자 식당과 게스트하우스를 함께 운영하다 보니 힘에 부칠 때가 많았다. 하지만 동생의 합류로 식당과 게스트하우스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다. 자매가 새로운 메뉴와 프로그램을 고민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다. 덩달아 찾아오는 손님도 늘었다.





완주DMO와 기획한 워크숍 <나는, 일로>

작년 홍 대표는 완주 DMO와 협력하여 <나는, 일로 in 홍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박 3일 동안 젊은 미혼남녀가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방식의 워크숍 프로그램이다. 벌써 3기가 완료되었고 앞으로 10기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홍 대표는 이 프로그램을 구상하면서 인위적인 만남이 아닌 자연스러운 인연에 가장 많이 신경 썼다.

이 시대 솔로들은 제 한몫 건사하기도 힘들다. 주변에 눈 돌릴 마음의 여유도 없다. 직장인들이 퇴근 이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힐링을 느끼고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도 그 때문이다. 단지 연애만이 아니라 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취지 때문인지 사람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완주 DMO의 제안을 받아서 진행한 프로그램이지만 반응이 좋다 보니 만약에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홍 대표는 평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삼례의 아름다운 풍광과 여유로움을 만끽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제주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손님의 경우, 이곳을 기점으로 일주일 동안 머무르며 남원과 군산 등 주변 지역까지 다녀오면서 힐링을 경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게 이곳에 머물거나 식사를 했던 손님들은 삼례를 지키는 젊은 사장의 든든한 자산이자 후원자가 되었다.

삼례를 이야기합니다

홍스테이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선사한 별명이 있다. 바로 삼례의 빛이라는 이름이다.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홍 대표는 기분이 좋다. 이 이름은 홍스테이가 어두워지면 적막에 빠져버리는 삼례에서 불을 밝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녀 역시 해만 지면 인적이 끊어지는 삼례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던 터라 이 이름에 더 애착이 간다.

홍 대표는 이곳이 여행자들의 쉼터이자 동네사람들의 사랑방 같은 공간으로 인식되기를 원한다. 나아가 변화에 더딘 삼례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등불과 같은 역할을 담당했으면 하는 바람도 크다. 또한, 그녀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삼례문화 예술촌을 비롯하여 비비정의 일몰, 만경강 산책의 여유로움 등 알려주고 싶은 것도 많다. 스쳐 지나가는 이들로서는 알 수 없는 보석 같은 공간이 삼례에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요즘은 비수기였던 늦가을에도 꾸준히 손님이 찾는 추세이다. 이전에는 겨울이면 손님이 뜸해져서 힘이 들었던 적도 있다. 하지만 인지도가 높아지고 음식에 대한 소문이 나면서 주말이면 대기를 하는 경우도 흔하다. 음식을 먹기 위해 일부러 다른 지역에서 찾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요즘 자매는 신이 난다.

홍 대표는 홍식당이 삼례에서 편안함과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기억되기를 원한다. 음식이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곳을 찾는 이들이 여기를 따뜻한 공간으로 기억해주기를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홍 대표는 그 설렘을 안고 오늘도 가게 문을 연다.



한옥에서 힐링을 나누다

역새밭에서 소양고택을 만나다



처음 한옥을 콘텐츠로 삼겠다고 다짐한 후 땅을 보러 다녔다. 알팍한 지갑 때문에 도심은 꿈도 못 꾸고 한참 떨어진 변두리를 찾아다녔다. 그때 완주에서 제주 오름 같은 인상을 주는 갈대밭을 만났다. 무성한 갈대밭으로 들어서자 새들이 후드득 날아올랐다. 새들도 낮잠을 자러 올 정도면 이곳에 터를 잡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터에서 바라본 푸근한 산도 마음에 들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소양고택은 이런 자연에서 탄생했다.

어찌하여 터는 마련했지만 한옥을 마련하는 일은 엄두가 나지 않았다. 신축건물을 짓는 것과 달리 고택은 해체와 복원 작업이 까다롭다. 고택 이야기가 나오면 웬만한 목수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손사래를 치는 이유이다. 그러다가 우연히 고창에서 백여든 살 먹은 고택을 만났다. 터춤택감인 1호 혜온당(惠溫堂)은 그렇게 소양고택의 소중한 식구가 되었다.

대개 일반인들의 한옥에 대한 인상은 고루하고 낡았다는 느낌이 강하다. 이를 감안하여 이 대표는 소양고택의 고풍스러운 한옥의 외관을 살리되 내부는 세련된 편리함과 현대적인 감성을 담는 데 주력했다. 중장년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했다.

과감하게 숙소의 TV를 없애고 와이파이 신호도 약하게 조정했다. 대신 꽃차와 다기 세트를 배치했다. TV나 핸드폰 대신에 함께 온 이들과 차 한 잔 나누는 대화의 시간이 그 빈자리를 채웠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다. 덕분에 여기 머문 이들이 푸근한 완주의 자연과 한결 더 친해졌음을 물론이다.



한옥의 마음을 다아가다

사람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집이라는 장소가 사람이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을 위한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가정집도 그렇지만 나그네가 하루를 묵어가는 공간도 마찬가지이다. 소양고택 이문희 대표에게 집이란 집주인의 성품과 마음을 닮은 공간이다.

집은 지은 이의 내력과 정성을 간직하며 늙어간다. 그래서 집을 보면 어떤 주인을 거쳤는지를 알 수 있다. 소양고택에는 고창, 무안, 포항에서 이사 온 집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살아간다. 이 대표는 서울에서 공부할 때 인사동의 <아름다운 차박물관>을 자주 가곤 했다. 중정을 품고 있는 한옥에 들어가면 우선 마음이 편했다. 가끔 힘이 들 때면 이곳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났다. 그렇게 이 대표에게 한옥은 위로와 감동을 선사했다.

소양고택 설립과정에 또 다른 영감을 준 곳은 담양의 죽녹원이다. 어쩌면 이 대표는 푸른 뗏바람이 불어오는 열린 자연 속에서 얼핏 소양고택의 미래 풍경을 떠올렸을 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인지 소양고택에는 곳곳에 자연이 성큼 들어와 있다. 사람들은 차를 마시거나 이곳에 머물면서 완주의 산과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곳에 머물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이 치유이자 힐링인 셈이다.

지역 책방의 미래를 그린다

현재 소양고택에는 플리커(flicker)라는 책방이 있다. 책방 이름으로 아이디어가 번뜩인다는 뜻의 플리커를 택한 이유는 공간이 사람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담는다는 이 대표의 소신 때문이다. 언뜻 숙박과 책방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판매도 하지만 이곳에 머무는 손님들은 마음에 드는 책을 대여해서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게 된 사연이 재미있다.

어느 날 이 대표는 어머니와 들린 유후인에서 300년 된 고택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다. 숙소 한편에는 대대로 수집한 유물을 모아둔 작은 박물관과 집안의 역사가 담백 담긴 서재가 있었다. 기존의 숙소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바뀌는 경험이었다. 순간 충격과 함께 감동이 밀려왔다.

소양고택에 머무는 손님들은 이 책방에서 체크인을 한다. 책방은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고풍스러운 소양고택으로 통하는 통로인 셈이다. 이 책방에서는 <심야책방>이라는 이름으로 김용택, 나태주 등 유명시인만이 아니라 신인작가들의 북토크가 열린다. 이제 각 걸음을 땀 지역의 신인작가로서는 자신의 책을 소개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는 셈이다. 북토크는 소양고택만의 독특한 문화 나눔 방식이다.

현재 서점이 있는 자리는 오랜 세월 지역의 노포로 사랑받던 곳이었다. 학생 시절의 추억이 깃든 장소에 책방이 자리하며, 과거의 기억 위에 새로운 문화의 결을 더하고 있다. 도슨트 투어와 한국식 디저트를 곁들인 티파티로 문을 열었던 초기 기획은, 공간을 문화체험공간으로 확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기다려지는 소양고택의 겨울

올해로 소양고택이 세상에 나온 지 14년째이다. 누구보다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사계절을 누렸을 이 대표이기에 어느 계절이 가장 마음에 드느냐고 물어 보았다. 망설임 없이 돌아온 대답은 겨울이었다. 이 대표가 보여주는 몇 장의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하얀 눈에 파묻힌 한옥이 거기 있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아보았다. 흐드러진 달밤, 들창을 여니 눈이 펄펄 내린다. 밤새 싸드락싸드락 눈은 쌓이고 소양고택에도 달달한 침묵이 찾아든다. 이런 밤이면 음악을 들어도 좋고 그리운 이에게 편지를 써도 좋으리라.

눈 구경을 실컷하다가 뜨끈뜨끈한 황토 구들장에 몸을 누이면 세상에 그런 호사가 어디 있겠는가. 게다가 모닥불에 군고구마를 구워 먹는 즐거움까지 공짜로 맛볼 수 있다니 겨울철 소양고택이 더 기다려진다. 아침에 나는 눈을 밝고 이 대표 어머니가 농사지는 재료로 만든다는 푸근한 아침을 먹으러 갈 것이다.



공간을 지키는 시간과 몰입

공간의 경쟁력은 상권이나 규모가 아니라 얼마나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는가에서 나온다는 것이 이 대표의 생각이다. 메뉴 개발과 프로그램 설계는 직접 맡았다. 대학 시절부터 한식과 일식, 제과제빵, 바리스타, 차예절지도사 자격까지 차근차근 배움을 채웠다. 소양고택을 시작한 뒤에는 365일 중 363일을 현장에서 보낸 적도 있다. 현장을 지키는 시간이 곧 공간의 힘이라는 믿음이 그를 움직였다.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그는 먼저 묻는다. 올인할 수 있는가. 목표에 몰입하지 못하면 결국 공간에는 자신의 100%가 담기지 않는다. 경제적 여건과 준비 기간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일, 의구심보다 실행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가 바닥에서부터 쌓아 온 경험은, 현장의 시간을 버티는 법을 알려준다.

지역과 상생을 설계하다

예술을 전공한 이 대표는 지역 예술문화와 지역 상생에 관심이 많다. 두베카페 2층에 작가 레지던시 공간을 마련한 것도 그 때문이다. 2024년 신인작가 네 명이 그 혜택을 받았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2023년에 완주DMO와 함께 파일럿 형태로 워크이션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조선 건축의 아름다움>이라는 도슨트 프로그램, 완주에서 나오는 제철과일로 만드는 과일청 체험프로그램, 가족 공예 등이 특히 인기가 높았다. 올해는 자생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 대표가 14년간 소양고택을 운영하면서 항상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다. 아무래도 자리한 위치가 외진 곳이다 보니 가로등조차 여의치 않았다. 만약 야행상품을 만들면 주변 환경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던 차에 완주DMO와 함께 <별빛주막·소양점>이라는 행사를 2024년에 기획해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미디어 파사드, NFT 작품 전시, 버스킹 등 야외 공연이 펼쳐졌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먹거리 부스도 운영되었다. 뿐만 아니라 환경을 위해 다화용기를 사용하고 입장권 봉지도 적극 활용했다. 당시 저녁만 되면 고조되었던 소양고택이 모처럼 사람들 웃음소리로 북적였고, 이 대표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설렘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현재는 완주DMO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셸럽로드 투어에도 셸럽 3인 중 한 명으로 참여하고 있다. 소양고택 한옥 비즈니스 인사이트 투어에서는 15년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간·운영·브랜딩의 실재를 전하며, 관광객과 지역민에게 새로운 시선을 제공해 완주 관광에 힘을 보태고 있다.

소양고택의 미래

소양고택의 내일을 생각하면 삶에 필요한 가치를 다시 보게 된다. 바쁜 일상 속에서 쉼의 방식을 제안하고,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건네는 문화 플랫폼으로 남고자 한다. 고택의 가치가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의 시스템을 가다듬는 일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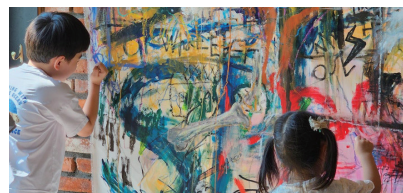
앞으로 10년, 50년 뒤의 소양고택을 상상한다. 창업자가 늘 현장을 지키지 않더라도 공간의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사람과 프로그램, 운영의 결을 이어가는 방법을 찾고 있다. 오래 집을 가꿔 온 이들의 시간과 장인의 마음이 헛되지 않게, 소양고택이 앞으로도 좋은 공간으로 남기를 바란다.

소양고택에는 문을 열었을 때부터 가족처럼 드나들면서 격려와 위로를 해주었던 오랜 단골이 많다. 이 대표는 소양고택이 혼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멀리에서 일부터 찾아오신 분들이 마음을 보태고 같이 키워주셨다고 믿는다. 그 마음을 알기에 이 대표는 소양고택을 찾은 이들이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자신이 머무는 동안에도, 그 이후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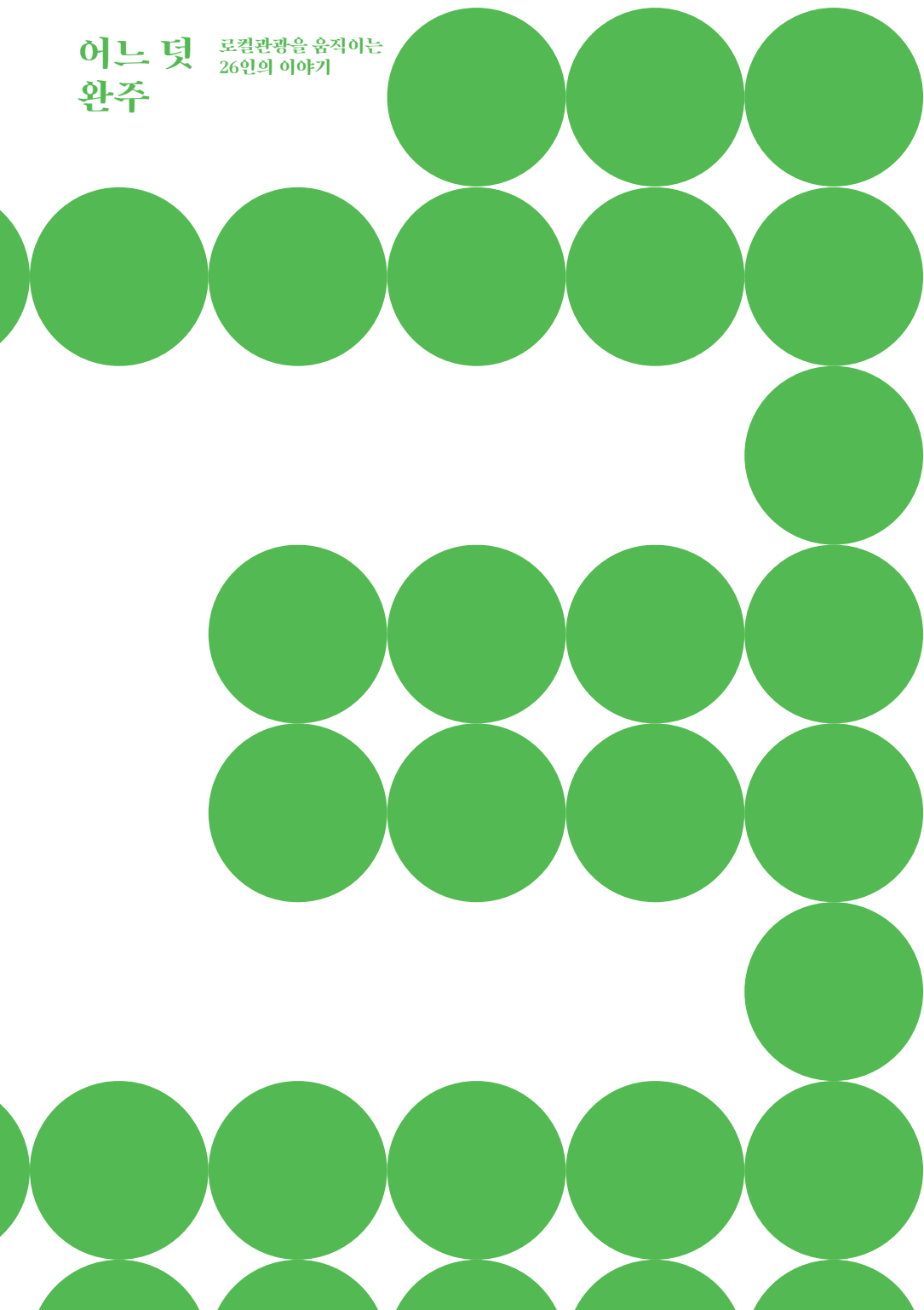
〈소양고택〉



이문희 대표

어느 덧 완주

로컬관광을 움직이는
26인의 이야기



뿌리로 살아 내다

12.	정선진	건강한 농촌 철학 <본앤하이리>	56
13.	임보령	예술로 시작해 맛으로 완성하다 <비비정가>	60
14.	박하숨	완주를 대표하는 로컬푸드를 꿈꾸며 <그린키킵>	64
15.	조자영	고산에서 시작된 자매의 건강한 아침 <고산의 아침>	68
16.	전수미	전통과 혁신을 잇는 막걸리 <눈부신자연애>	72
17.	박선영	완주의 맛과 마음을 담다 <영농조합법인미르>	76
18.	김현화&김용현	완주 귀촌 부부의 빵 이야기 <와앙(come&bite)>	80
19.	김수연	숲속에서 피어난 문화와 상생의 공간 <카페 애드리브>	84

농촌의 건강함과 편안함을 팝니다



끝이 안보이는 농사와 결별하기

기후 변화와 농업의 불확실성 속에서 농부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맞이한다. 기후 이변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금사과나 금상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농부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분명 큰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엉뚱한 오해만 살 것이 변하기 때문이다. 부지런히 일해도 하늘이 허락해야 비로소 수확물을 얻을 수 있고, 그나마 제값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네 농촌 현실이다. 본앤하이리 정선진 대표는 이런 농촌의 고질적인 구조 문제가 늘 가슴 아팠다.

정 대표는 고향 임실에서 완주 하이리로 시집와서 시아버지 곁에서 농사일을 배우면서 실패도 많이 했다. 땅을 제대로 모르고 시작한 농사는 실통치 않았다. 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도한 농업은 실패를 반복했다. 어느 해는 고생 끝에 수확한 농작물이 박스값도 건지지 못했을 때도 있었다. 그러다가 땅을 제대로 이해하자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드디어 땅과 함께 하는 진짜 농부가 된 것이다.

단순 재배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짓다

완주 용진에 위치한 하이리 마을의 대표 상품은 상추이다. 이 마을 사람 대부분이 상추를 재배한다. 하지만 정 대표는 상추 대신 레몬에 승부를 걸었다. 이전까지 포도, 방울토마토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안착한 것이 레몬이다. 시험 삼아 유자와 한라봉을 심었던 것이 가능성을 보이자 본격적으로 레몬에 집중하기 했고, 그 결과는 사람들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돌아왔다.

정 대표는 단지 레몬을 재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카페를 열어 우리 밀로 만든 빵과 레몬으로 만든 각종 가공 농산물을 팔았다. 이제 사람들은 레몬 농장을 구경하거나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자연스럽게 매장에서 신선하고 맛있는 빵과 본앤하이리의 주변 풍경을 즐기며 여유를 즐긴다. 단순 생산단계의 1차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낸 6차 산업의 틀을 안정적으로 구축한 결과이다.



농부이자 사업가로 거듭 나는 기회, 선진지 견학

정 대표는 하이리로 시집온 후 내리 몇 년을 농사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농사 일은 생각 이상으로 노동 강도가 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체력의 한계에 직면했다. 불안정한 농산물 수급 구조는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자 몸과 마음이 조금씩 금이 갔다. 그러던 중 운명처럼 해외 선진지 견학의 기회가 생겼다. 처음 만난 네덜란드 농장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방문했던 농장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단순한 상품 판매가 아니라 농장의 건강함과 여유로움을 관광상품화하는 모습이 새롭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벨기에의 농가 체험도 정 대표에게는 신선했다. 사설로 운영하는 딸기 박물관은 딸기와 관련하여 온갖 자료를 축적하고 있었다. 견학 도중 건강하고 싱싱한 베리류를 그 자리에 따 먹으라고 권유하는 모습에서 농부의 진심과 상품화 가능성을 발견했다. 품질에 대한 자부심과 그동안 정성을 기울여 왔다는 농부의 긍지가 온몸으로 느껴졌다. 딸기 하나로도 충분한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 대표에게는 깊은 인상과 함께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또 다른 충격은 현지의 농가 환경이었다. 농촌임에도 상상 이상으로 깨끗한 환경을 보면서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 대표는 자신이 뿌리내리고 있는 하이리를 돌아보았다. 그녀가 하이리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었다. 그와 함께 그동안 고민해 왔던 농장의 정체성 찾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처럼 선진지 견학은 그녀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농촌의 삶을 더욱 만족스럽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그녀에게 다가온 행운의 시작이었다.



관계를 더 생각하는 농촌교육이 중요한 이유

2021년부터 정 대표가 운영하는 꿈드림영농조합법인은 사회적 농장으로 선정되어 사회약자를 위한 본격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2017년부터 완주군의 특수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은 있었다.

특수 발달장애 청소년은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다. 정 대표가 처음부터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모종을 심고 키우고 수확하는 일련의 과정을 기획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프로그램 내용도 농업 외에 염색, 목공 등도 포함시켜 아이들의 흥미 유발과 동기 부여에 신경 썼다. 이 과정을 하면서 아이들은 좀 더 건강해졌고 예비농부로서 자신이 애정을 기울인 농작물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최근까지 완주군 6개 학교의 학생들이 이 축복받은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올해처럼 농작물이 수난을 당한 해가 없을 것이다. 폭염 때문에 몇 번이나 다시 작물을 심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하지만 아이들이 키운 농작물은 달랐다. 직접 보니 아이들의 정성 때문이었는지 보기에도 실한 배추가 밭에 한가득이었다. 텃밭에 씨를 파종하고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갑자기 궁금해졌다. 이 건강한 농작물을 보면서 아이들의 심성도 그만큼 실하게 여물었으리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정 대표는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에도 진심을 다한다. 사람들이 우리의 건강한 먹거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농촌을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체험장에서 자신들이 만든 건강한 음식을 경의와 부딪함으로 쳐다보는 이들의 눈빛을 보면서 정 대표는 이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농촌의 편안함을 팝니다

정 대표는 본앤하이리와 레몬농장이 이곳을 찾는 사람에게 고택집이나 사랑방과 같은 친숙하고 편안함으로 다가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금 카페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도 오래 호흡을 맞추면서 그들이 이곳에서 삶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것도 그와 같은 바람이다.

최근 정 대표는 기존의 농업 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에 더 중점을 두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그동안 농장과 카페, 그리고 교육장을 운영한 것도 그 고민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정 대표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농업과 서비스의 접점 찾기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온 것도 이 모델이 우리 농촌의 바람직한 미래가 아닐까 하는 바람에서이다.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정 대표가 새롭게 깨달은 것도 많다.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받은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었다. 그들의 즐거워하고 서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 대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이제 정 대표의 또 다른 가족이 되었다.

700평을 꽉 채운 호박밭과 탐스럽게 자라고 있는 배추밭을 보면서 정 대표의 꿈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정 대표는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즐기는 사람이 아닐까. 아마 사람들이 본앤하이리와 레몬농장을 좋아하고 다시 찾는 이유는 한동안 잊고 살았던 건강한 우리 농산물에 대한 믿음 때문일 것이다.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편안함, 그런 점에서 정 대표의 꿈과 우리의 지향점은 참 많이 닮았다.



예술로 시작해 맛으로 완성하다



예술의 길에서 치유를 꿈꾸다

어머니는 진안에서 도자기를 구우셨다. 가마까지 갖추고 다양한 체험 교육을 하면서 예술인으로 사셨다. 딸도 어린 시절부터 도자기를 늘 보아왔던 터라 자연스럽게 도자기를 익혔다. 이후 천아트에 관심이 생겨 15년 동안 도자기와 천아트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하면서 살았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자신이 비비정가 레스토랑을 운영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현재 비비정가를 이끌고 있는 임보령 대표 이야기이다.



색으로 물든 작은 교실

그녀는 15년이 넘게 고향 진안에서 오지를 돌아다니며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천아트 공예를 강의했다. 처음에는 수줍어하며 못 하겠다고 손사래를 치던 어르신들이 농사일로 바쁜 철에도 빠짐없이 공예 수업에 참여했다. 무표정했던 얼굴이 수업이 끝나면 웃음꽃이 활짝 피었음은 물론이다. 수강했던 어르신 중의 한 분은 딸이 엄마가 연습용으로 작업했던 천을 잘라내 액자에 넣어 보관할 정도였다. 이렇게 만든 결과물에 주변의 반응이 좋다 보니 어르신들도 천아트의 매력에 푹 빠졌다.

이런 류의 예술 체험 프로그램은 대부분 본을 뜬 상태에서 색칠만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 대충 시간 때우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이벤트성이 많다 보니 결과물이 조잡하기도 하다. 하지만 임 대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어르신들 스스로가 시작부터 끝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이다. 조금해하지 않고 기다리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 결과 같은 꽃을 보고 그려도 각자의 개성이 듬뿍 묻어나는 사랑스러운 작품이 탄생했다.

봄이면 진달래, 겨울이면 목화꽃이 천에 그려졌다. 세상에 없는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재미를 뒤늦게 알아버린 어르신들의 실력이 일취월장했음은 물론이다. 임 대표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직접 동대문시장에 가서 광목천을 끊는 등 마음과 정성을 기울였다. 그 마음이 통했을까. 나중에는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당시 오지 구석구석까지 다녔던 교육 프로그램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만경강이 맺어준 비비정가와 인연

한때 비비정 농가레스토랑은 농촌판 유흥당으로 불릴 정도로 유명했다. 노을이 유명한 만경강에 왔다가 겸사겸사 이곳을 찾는 이들도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최근 몇 년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이 무렵 비비정 열차카페 초창기 멤버로 활동했던 임 대표에게 비비정 농가레스토랑을 해보지 않겠냐는 주변의 권유가 있었다. 군에서는 그동안 마을 공동체에서 운영하던 레스토랑이 고령화에 따라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민간 위탁 공고를 냈던 것이다.

임 대표는 고민 끝에 지원서를 냈고 마침내 선정되었다. 고향 진안을 떠나 용진에서 지내던 그녀는 레스토랑에 집중하기 위해 삼례로 이사를 왔다. 어릴 적부터 고향에서 백숙에 관해서만큼은 명성이 자자했던지라 백숙만큼은 자신이 있었다. 다행히 삼례는 토종닭이 유명한 지역이라 임 대표가 내세운 콘셉트도 맞았다. 문제는 손님이 별로 없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하면서 흑임자를 넣어 한방백숙 같은 향이 나는 비비정가 백숙을 찾는 이가 점점 많아졌다. 조금씩 자신감이 붙었다.

하지만 백숙은 계절을 많이 타는 음식이다. 다른 대체 메뉴 개발이 절실했다. 그래서 눈길을 돌린 게 전골류이다. 찬바람이 불면서 뜨끈한 국물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다행히 고심 끝에 선보인 버섯전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좋았다. 현재는 김치전골 등 영역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요리를 개발하는 중이다.



건강한 지역 밥상을 책임지다

임 대표는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 식재료로 쓴다는 원칙을 세웠다. 지금까지는 인근 농사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완주 전역으로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녀는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를 소재로 비비정가를 대표할 음식을 개발하고, 다른 특산물로 판로를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역에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 관계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푸리마켓도 열겠다는 포부도 세웠다. 각 나라의 음식도 소개하고 문화도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농가들과 안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메뉴를 앞세워 완주의 대표 명소가 되겠다는 당찬 꿈도 생겼다.

요즘 들어 지역에서 나오는 건강차나 발효차, 한식 디저트 개발에도 부쩍 관심이 생겼다. 임 대표가 비비정가의 변신을 꿈꾸는 이유는 건강한 먹거리가 사람을 살리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녀는 이 외에도 완주 DMO와 협력하여 완주 지역의 특산품이나 기념품 등도 연계하는 프로젝트에도 관심이 많다.

지역 특산품 개발에 대한 노하우와 폭넓은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있는 완주 DMO(말로 비비정)가 든든한 후원자이자 믿음직한 조력자이다.

비비정가는 완산 8경의 하나로 꼽히는 비비정 인근에 있다. 사람들은 자전거 하이킹을 왔다가 또는 비비정을 찾았다가 이곳을 들린다. 찾는 사람들 대부분이 타지인인 만큼 임 대표는 비비정가가 지역의 특색을 알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다.



지역과 함께 웃는 행복한 세상



삼례에 터를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임 대표는 본업인 식당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우선 자신의 강점인 천아트 체험 프로그램을 지역의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이 천아트 프로그램을 진행 하면서 치유와 힐링을 경험하고 자신감이 회복되는 걸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계획으로는 현재 비비정가 내에 있는 야외 결혼식장을 좀 더 활성화하는 것이다. 다행히 비비정가에는 야외 결혼식을 치르기에 넉넉한 여유로운 공간이 있다. 임 대표는 외국 이주여성이나 결혼할 형편이 되지 않는 이들에게 이 공간을 대여해 춤으로써 새로운 가정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한다. 그것이야말로 비비정가가 지역과 더불어 사는 길이자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는 규모는 작지만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들이 있다. 그게 반드시 먹거리가 아니더라도 천아트 체험 프로그램이나 웨딩이어도 좋다는 게 임 대표의 지론이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그 꿈의 가치를 알아주고 함께 할 이들을 만나는 게 올해 임 대표의 가장 큰 목표이다. 비비정가가 그 사람들의 환한 웃음소리로 복적이는 상상을 해 본다.

벌써부터 그 꿈이 만드는 세상이 보고 싶다.

완주를 대표하는 로컬푸드를 꿈꾸다

지역에 대한 고민이
그린키킵으로
이어지다



그린키킵이라는 이름은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지구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취지를 알고 나면 이해가 쉬워진다. 내년쯤 법인화를 꿈꾸고 있는 그린키킵은 아직은 공동체에 불과하다. 하지만 만약 농업법인이 된다면 지금과는 양상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박하숨 대표는 말한다.

박 대표는 외가가 있던 삼례가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다. 나이가 들면서 완주에 더 눈길이 갔고, 3년 전부터 뜻을 같이 하던 청년들과 2024년 1월 본격적인 공동체를 설립하면서 완주에 터를 잡게 되었다.

최근 로컬푸드로 주목받는 업체인 그린키킵은 완주의 농산물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다. 알고 보니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다. 그때 든 생각이 완주의 건강한 먹거리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제대로 된 완주의 음식문화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뜻이 맞는 이들이 합류하면서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완주 DMO와의 소중한 인연

처음 기획한 것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었다. 하지만 내리 3년을 지원사업에 떨어지면서 방향을 바꿨다. 일단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기로 한 것이다. 팀원 중에 요리에 재능이 있는 친구가 먼저 물꼬를 트고, 나머지 팀원이 합류하면서 본격적인 로컬 푸드 클래스가 만들어졌다.

그 과정에서 완주 DMO는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였다.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네트워크망이 없던 그린키킵으로는 돌파구가 필요했던 시점이었다. 그때 손을 내밀어 준 게 바로 완주 DMO였다. 완주 군내에서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갖춘 완주 DMO는 그린키킵의 초기 사업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든직한 후원자 역할을 해주었다. 또한, 사업의 첫 주문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자신감을 주었다. 지금도 완주 DMO는 그린키킵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이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DMO사업의 일환으로 치맥하삼레 서포터즈 운영에도 함께 참여하며, 축제 현장을 지원하고 방문객과 직접 호흡하는 경험을 쌓았다. 이를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탰다.





로컬푸드만큼은 우리가

하지만 현장은 예상만큼 쉽지 않았다. 농부들의 반응도 달랐다. 고생하여 어렵사리 수확한 농산물을 제값 받아 주겠다는 취지에도 반응이 뜨뜻미지근했다. 알고 보니 이전에 이런 류의 제안이 거의 없었던 게 문제의 발단이었다.

완주에서 농사짓는 이들은 유통과정에서 발떼기를 하거나 대단위로 공판장에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그린키킵에서 필요한 수요라고 해봤자 양이 얼마되지 않다 보니 점점 찾기가 쉽지 않았다. 대단위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소규모를 주문하는 그린키킵의 존재감은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2024년에는 완주 군청의 도움을 얻어 조금씩 농가들과 신뢰를 쌓는 단계까지 이루어낼 수 있었다. 박 대표는 처음 이 일을 시작하면서 농가와 신뢰를 쌓은 상태에서 안정적인 유통구조까지 구축하고 싶어 했다. 이는 그녀가 꿈꾸던 우리 농가의 미래 청사진과 닮아 있었다.

농가들과 지속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면 언젠가 팜파티 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싶어 했다. 각 농가에서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을 거래하고, 농가들의 고민과 노하우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도 있었다. 박 대표는 일본이나 유럽에서 이루어지는 농산물 유통의 새로운 변화를 완주에서도 신나게 시도해보고 싶어 했다.

푸드 클래스에서 꿈을 보다

아직 초창기 단계이다 보니 그린키킵이 내세울 수 있는 주력상품은 그다지 많지 않다. 현재 그린키킵의 히트 상품은 푸드 클래스이다. 올해 시작했음에도 짧은 기간에 1,0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푸드 클래스의 프로그램을 즐겼다.

박 대표는 푸드 클래스를 운영할 때 몇 가지 원칙을 지켰다.

첫째, 완주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사용한다. 둘째, 푸드 클래스를 진행하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을 사랑하도록 한다. 셋째, 즐겁고 재미있게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그린키킵이 내세웠던 원칙은 단순하면서도 명확했다. 다행히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푸드 클래스는 큰 호응을 얻었다.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완주군청 식품마케팅과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 결과 유치원생부터 여러 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강의 및 체험 요청도 이어졌다.

아이들이 다음 수업을 기다리고, 학부모의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를 들으면서 팀원들 역시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지역 농산물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과정은 힘이 들지만 그만큼 그린키킵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지금도 그린키킵이 우리 농산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활동력이 된 것도 바로 푸드 클래스이다.



새로운 꿈을 꾸는 완주 청년들

신생 공동체인 그린키킵에게 2024년은 기쁜 일이 많았던 해였다. 우선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2024 로컬 특화 여행상품 공모에 <달밤 술안주-완주 전통주 테마 여행>이 선정되면서 사업화 자금을 받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평소 박 대표가 관광에 관심이 많던 터라 지역의 문화자산을 토대로 관광상품화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또한 그린키킵은 완주군 식품마케팅과와 연계하여 한인비즈니스 대회의 발효식품군 관련 업체를 발굴하는 일도 진행했다. 이후에도 박 대표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업체를 발굴하며 이들과 협력체제를 유지해 지역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탰다.

박 대표에게는 사업 초창기에 유기농 채소가 필요하여 이를 재배한다는 농장을 찾았으나 구할 수 없었던 아픈 기억이 있다. 재배 농가가 수확성 문제로 재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앞으로 스마트 팜, 푸드 클래스, 라이브커머스, 관광분야까지 다양한 분야로 꿈을 넓히고 싶어한다.

이 사건은 박대표에게 농가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 아픈 기억이기도 하다. 이를 상쇄시킬 대안으로 스마트팜 운영 기획을 생각하였다. 박 대표가 워낙 샐러드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키우고 싶기 때문이다. 여기서 얻어진 농산물을 라이브커머스로 판매하고, 푸드 클래스에서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를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가세한다면 관광 상품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으리라는 게 박 대표의 바람이다. 그린키킵이라는 이름으로 불어오는 그 신나는 바람을 조만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고산에서 시작된 자매의 건강한 아침



몸을 돌보고 삶을 바꾸는 일

조자영 대표는 IT 분야에서 오랜 시간 일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근무와 무리한 일정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건강의 균형이 무너졌다. 의욕이 사라지고, 걷기도 힘들었던 시기. 그 모습을 본 언니는 휴가를 내고 동생 곁을 지켰다. 무엇을 먹어야 하고, 어떤 식단이 필요한지를 하나하나 챙기고 함께 운동했다. 그렇게 서서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건강과 일상의 감각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되었다. 자매는 음식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고산에서 고산의 아침을 열었다. 건강한 재료로 만든 음식이 곧 자신을 회복시킨 힘이라는 확신, 그리고 그 힘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시작이었다.



고산에 안착하다

인천 출신인 조자영 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일하는 날이 늘어나면서, 지역에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완주 고산에서 3개월간의 체험을 가졌다. 조용하지만 생기가 흐르는 고산의 분위기,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정착한 이주민 커뮤니티가 큰 인상을 남겼다. 처음엔 정착할 생각이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렸다.

이후 언니도 함께 완주로 내려오게 됐고, 두 사람은 2024년 2월 고산의 아침을 열었다. 로컬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한 음식, 나눔과 협업이 자연스러운 식문화. 자매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의 기반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음식으로 이어지는 사람들

고산의 아침은 로컬 식재료를 활용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지역과 관계를 넓혀 가는 실험의 공간이다. 대표 메뉴 중 하나인 토종콩 스프레드와 소이밀크는 지역 농가에서 직접 공급받은 귀한 재료들로 만든다. 봄나물 페스토, 디핑 소스 등 행사마다 새로운 조합을 선보이며 고산의 계절을 담아낸다.

자매가 기억하는 순간들 중에는 플리마켓에서의 만남도 많다. 손님이 친구를 데려오고, 그 친구가 또 가족과 함께 다시 찾아오기도 한다. 이들의 음식이 입소문을 타고 지역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은 고산이라는 공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다.

상생을 지키는 작은 약속

고산의 아침은 오픈 초기부터 상생을 중요한 가치로 삼았다. 주변 상권과 겹치지 않는 메뉴를 개발하고, 지역 로컬푸드 매장과 소농가에서 재료를 구매한다. 당일 제조·당일 판매 원칙을 지키며, 초가공 식품과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든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운영 원칙을 넘어, 자매가 삶에서 직접 체득한 진심의 방식이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농가와 협업하고, 이웃과 연결되며, 브랜드의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왔다. 그 자체로 지역과 공존하고 있다는 감각을 전한다.



브랜드, 그리고 미래의 식탁

고산의 아침은 이제 하나의 브랜드로 주목받고 있다. 자연주의 철학을 담은 로고와 디자인, 정제된 콘셉트는 단순한 제품을 넘어 브랜딩과 콘텐츠 요청으로 이어졌다. 조자영 대표는 IT 경험을 살려 브랜딩과 기획에 관심을 넓혀가고 있고, 언니는 의대에서 연구 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경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식품들을 개발하고 있다. 두 사람은 한국적인 재료와 발효 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소스를 만드는 실험도 이어가고 있다. 제철 재료를 활용하고, 설탕이나 화학조미료 없이 자연의 단맛을 살리는 방식. 고산의 아침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건강한 힘을 담아내는 브랜드를 지향한다.

최근에는 완주문화재단과 함께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완주 미식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로컬푸드 1번지인 완주의 특별함을 담아, 더 맛있고 건강하며 세련된 모습으로 많은 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완주의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메뉴 개발에 진심을 담고 있다.



고산에서 다시 피어난 삶

브랜드를 이어가는 가장 큰 동력은 사람이다. 운영을 통해 만나게 된 수많은 사람들, 이름도 모른 채 응원해 준 이들, 제품을 나누고 또다시 찾아와준 이들이 고산의 아침을 유지하는 힘이 된다. 지역살이에서 얻은 정, 공동체의 따뜻함, 그리고 믿음은 이들의 하루를 지탱해 준다.

무리하지 않고,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방식. 자매는 이 원칙을 지키며 조금씩 나아가려 한다. 이들이 만든 제품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건강한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고산에서 시작된 이 작은 브랜드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전통과 혁신을 잇는 막걸리



기억의 향기로 빛어진 첫걸음

어릴 적, 아버지가 즐겨 마시던 막걸리의 향과 따뜻한 분위기는 전수미 이사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았다. 그 추억은 자연스럽게 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특히 우리 고유의 전통주인 막걸리에 매료되었다.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자연과 시간, 정성이 어우러진 결과물"이라는 생각 아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국산 원재료를 활용해 전통의 맛을 살린 막걸리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했다.

첫 술을 빚었을 때는 설렘보다 긴장이 앞섰다. 날씨, 온도, 재료 하나하나가 결과를 좌우하는 예민한 발효 과정 속에서, 마침내 완성된 첫 막걸리를 맛본 순간 "내가 만든 술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겼다. 그때부터 막걸리는 단순 제조를 넘어 문화와 정서를 담는 작업이 되었다.



발효의 숨결이 들려주는 이야기

막걸리가 스스로 익어가는 발효의 순간, 그리고 완성 후 첫 맛을 보며 "이번엔 정말 잘 나왔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 가장 매력적이다. 무엇보다 이 일을 지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지역의 특산물이 막걸리를 통해 널리 알려지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축제나 행사에서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제품을 찾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일이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확신을 얻는다.

또한 지역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함께 성장한다는 점이 큰 힘이 된다. 농가의 노력이 술 한 잔에 고스란히 담긴다고 믿기에, 더 잘 만들어야겠다는 책임감이 크다.





정직한 재료와 느린 시간의 약속

농부신자연애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기본에 충실하자"는 원칙이다. 술은 정직한 결과물이기에, 원료·공정·환경 하나하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빠른 생산이나 변화하는 트렌드보다 제대로 발효시키는 시간을 들이며, 좋은 국산 원재료를 고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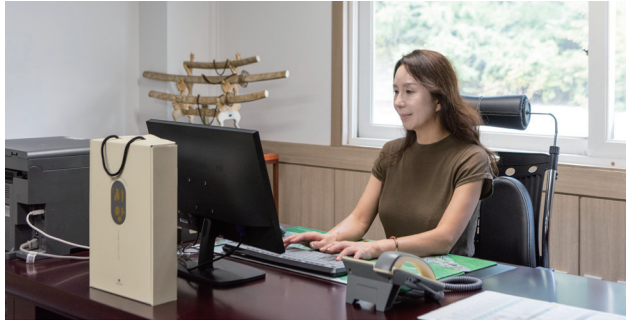
특히 황토 음악 발효실에서 맥걸리를 발효시키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한다. 음악이 술의 부드러운 맛과 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믿으며, 누룩과 물·쌀의 비율도 오랜 실험을 거쳐 최적화했다. 고두밥을 직접 지어 말리는 전통 방식 역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전통을 지키는 동시에, 완주 특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 또한 멈추지 않는다. 달기 축제에서 선보인 달기 맥걸리는 큰 인기를 끌었으며, 앞으로도 현대인의 입맛과 건강을 고려한 다양한 맥걸리를 선보일 계획이다.



사람과 술이 이어주는 따뜻한 순간

전 이사의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에서 만난 한 손님이다. 맥걸리를 맛본 그는 "이런 맥걸리는 처음"이라며 집에 가져가고 싶다고 했고, 가족과 함께 다시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 순간, "정말 사람을 위한 술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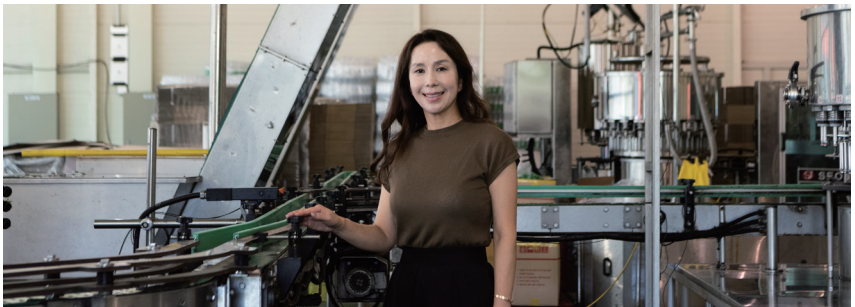
농부신자연애의 맥걸리는 지역 쌀·물·공기, 그리고 사람들로 만들어진다. 농가와 의 계약재배, 청년 협업, 주민 대상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결고리를 통해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



지역의 얼굴을 담아낸 한 잔

완주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완주 9품에 관심을 갖게 된 전 이사는 지역 자원으로 막걸리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완주DMO와 협업했다. 담당자 및 관계자들과 꾸준히 회의하고 배합 비율을 조정하며 고객 테스트를 거친 끝에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제품 개발이 아닌, 지역의 정체성과 관광 콘텐츠까지 함께 고민한 과정이었다. 완주DMO의 지원 덕분에 안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었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발효로 그리는 미래의 풍경

앞으로 눈부신자연애는 완주 9품을 비롯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프리미엄 막걸리 라인을 강화하고, 전국과 해외 시장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쌀뿐만 아니라 밀·콩을 활용한 발효, 저온 숙성, 고도화된 유산균 배양 기술 등 새로운 재료와 기술에도 관심이 많다.

궁극적인 목표는 발효문화 공간이다. 술뿐 아니라 전통 음식·예술체험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 자연과 사람을 잇는 쉼터로 삼고자 한다.

완주의 맛과 마음을 담다



식재료의 생명력을 지키는 일

박선영 대표는 완주에서 영농조합법인미르를 운영하며, 도시락, 공공 급식, 반찬 사업까지 폭넓은 식문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역의 잉여 농산물을 활용한 푸드물 운영, 직접 기획한 도시락과 반찬 개발, 청소년과 시니어 대상의 요리 교육까지. 그가 만든 음식에는 재료를 아끼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푸드물과 연계된 구조 덕분에, 하루 판매가 끝난 신선한 식재료가 다음날 반찬이나 체험, 도시락으로 이어진다. 1차 생산에서 끝나지 않고 2차, 3차로 가치를 더해가는 이 구조는 박 대표가 추구하는 식문화의 기본이자 원칙이다.

10년의 시간, 그리고 확장

완주로 이주한 지 10년. 박선영 대표는 원래 전주에서 활동하며 요리와 전통문화 교육을 이어왔다. 폐백 수업, 대규모 비빔밥 행사, 영양플러스 사업 등 다양한 현장을 거치며 쌓은 경험은 지금의 식문화 기획으로 확장되었다.

그런 시도 중 하나가 바로 모주향기다. 박 대표는 전통 음료인 모주에 지역 농산물과 한방 재료를 접목해,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저도주 형태의 발효 음료로 재탄생시켰다. 대추, 생강, 감초 등의 자연 재료로 진한 맛과 향을 살린 이 음료는, 건강을 챙기면서도 전통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대안 음료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전통 발효 방식과 로컬 푸드의 조화를 통해, 일상의 식문화에 건강과 이야기를 더하고자 하는 박 대표의 철학이 잘 담겨 있다.

특히 최근에는 완주 5미9품을 활용한 산단 근로자 대상 도시락 개발을 시도하며,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가공품과 레시피를 고민하고 있다. 꽃감을 올린 샐러드, 유부를 활용한 초밥 도시락, 오방색을 고려한 식단 구성까지 완주의 식재료가 담긴 도시락은 단순한 끼니를 넘어 하나의 완성도 있는 경험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지역의 맛과 이야기를 담아내며, 완주가 지향하는 미식관광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음식을 통해 지역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완주관광의 매력을 넓히는 데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다.



교육, 그리고 나눔의 기쁨

박 대표의 또 다른 중심축은 교육이다. 청소년 직업 교육, 시니어 대상 요리 수업, 복지 기관과의 협업까지, 음식은 늘 누군가를 위한 매개이자 나눔의 도구였다. 직접 만든 음식을 택배로 보내거나, 현장에서 함께 요리하며 전하는 마음은 단순한 조리 기술 이상의 울림을 준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말하는 그는, 하루의 일과가 오전 1시에 끝날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 자율성과 의미를 찾는다. 한때 꿈꾸던 한 평 짜리 줄 서는 가게는 이제 현실이 되었다. 조합이 운영하는 식당은 오픈 전부터 손님이 줄을 서는 풍경이 낯설지 않다.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정성으로 만든 반찬과 도시락, 든든한 한 끼에 대한 신뢰가 쌓인 결과다. 박 대표는 “음식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매일 실감한다”고 말한다.



신선한 재료, 검증된 맛

박 대표는 한국조리기능장 자격을 갖춘, 한식을 아우르는 전문가다. 자격증 자체보다 오랜 시간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철학이 이 명칭을 더 깊이 있게 만든다. 계절을 담은 반찬, 지역 농산물로 구성한 도시락, 전통 발효 방식으로 만든 음료까지. 그의 손에서 탄생하는 음식은 늘 한식이라는 뿌리 위에서 다양하게 펼쳐진다.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기본이다. "아침에 탄 열무는 간만 잘 맞추면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맛있다." 신선한 재료의 힘을 믿고, 그 정직한 맛을 검증받고 싶어 한다. 처음엔 스스로 특별히 잘하는 것도, 눈에 띄게 못하는 것도 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정직하게 만든 음식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지금은 수십만 원어치를 구입하러 일부러 찾아 오는 손님도 생겼다. 용진 로컬푸드에 걸린 이름값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 남기 위해 그는 여전히 현장을 지키고 있다.

한 끼의 밥으로 기억되는 지역

앞으로는 반찬의 다양성과 회원 기반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걸로 시작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다는 그는, 통계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운영, 식문화 콘텐츠 개발, 지역성 있는 메뉴 구성 등 다방면에서 실험 중이다.

완주의 이름을 담은 식탁을 꿈꾸며, 박선영 대표는 오늘도 주방과 현장을 오가며 바쁜 하루를 보낸다. 계절의 식재료를 담은 반찬, 오방색을 고려한 도시락, 정성과 마음을 담은 한 그릇의 음식. 그녀가 만드는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철학을 품은 이야기이자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작은 실천이다. 누구나 완주 하면 이 음식, 이 맛을 떠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지역의 맛과 이름이 하나가 되기를. 박 대표는 오늘도 묵묵히, 그리고 정성껏 식탁 위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즐겁고 맛있는 빵집, 와앙(come&bite)



즐겁고 맛있는 빵집, 와앙(come&bite)

완주 삼례의 골목을 지나면 눈길을 끄는 간판 하나가 보인다. 단순한 이름과 눈에 띄는 캐릭터. 와앙이라는 이름은 첫눈에 기억에 남고, 한 번 들으면 쉽게 잊히지 않는다.

와앙은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빵집으로, 오픈한 지 1년 6개월 만에 인근 전주, 익산, 김제, 대전까지 소문난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그 안에서 반죽을 다루는 이는 12년 동안 서울의 제과업 현장에서 일해 온 제빵사 김용현 대표이고, 손님을 맞이하고 매장의 홍보와 운영을 책임지는 이는 여행업에 몸담았던 동갑내기 아내 김현화 대표다. "완주에서 가장 즐겁고 맛있는 빵을 만드는 곳"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작한 와앙(come&bite)은 젊음과 용감함으로 완주에 귀촌한 부부의 이야기이다. 두 사람은 서울에서의 안정된 일상을 뒤로하고 연고 없는 완주로 내려와 전혀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

완주의 맛을 담은 시그니처 빵

와앙의 대표 제품은 완주 9품을 활용한 시그니처 크림빵 세 가지다. 삼례 딸기, 봉동 생강, 운주 흑곶감을 주재료로 삼아 완주의 맛을 한입에 담았다. 모든 빵은 천연 발효증으로 반죽을 기르고, 프랑스에서 들여온 친환경 밀가루를 사용해 밀가루 본연의 풍미를 살린다. 여기에 감자, 시금치, 꽃감 등 다양한 로컬 재료를 더해 와앙만의 개성을 완성한다.

삼례읍의 딸기로 만든 삼례 딸기 크림빵, 운주면에서 바람과 햇빛으로만 말린 두레시 품종 흑곶감이 들어간 운주 흑곶감 크림빵, 봉동읍에서 나는 생강으로 만든 봉동 생강 크림빵. 이 세 가지가 와앙의 시그니처다. 정성껏 만든 크림빵은 지역의 맛을 또렷하게 담아내며, 손님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좋은 재료로 성실히 굽는다는 원칙은 와앙의 기본이자 핵심이다.

이 덕분에 완주의 작은 빵집에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온다. 두 대표는 손님들이 멀리서도 발걸음을 해주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낀다. 와앙은 또 계절의 변화를 빵에 담는다. 봄에는 싱그러운 시금치, 가을에는 달콤한 고구마를 활용한 시즌 제품도 나온다. 제철 식재료의 맛과 향을 그대로 담아낸 빵은 완주의 계절이 주는 선물을 가장 맛있게 만나는 방법이 된다.



시골스럽지 않은 감성 베이커리

완주군 삼례읍이라는 작은 지역에 위치하지만, 와양은 대도시와 견주어도 부족함 없는 고품질의 빵과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기본 좋은 패키지로 시골스럽지 않은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단순히 빵을 판매하는 곳을 넘어, 지역 공간과 자원을 활용해 와양 브랜드의 이야기를 담은 체험형 베이커리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현화 대표는 가게를 시작하면서 가장 경계했던 점 중 하나가 촌스럽지 말자였다고 말한다. 전국의 청년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둘러보며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꼼꼼히 배우고, 그 경험을 토대로 와양만의 세련된 정체성을 만들고자 했다. 그래서 가게 이름부터 다양한 빵 종류까지 브랜드의 개성이 드러나도록 신경을 많이 썼다.

김용현 대표 역시 내부 디자인과 패키지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덧붙인다. 단순히 맛있는 빵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와양만의 특별한 분위기가 손님들에게 전달되면서 꾸준히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된 것이다.



빵 그 이상의 경험을 만드는 곳

완주는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함께 품은 지역이다. 평온한 자연은 사계절의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차로 한 시간 남짓이면 여러 도시로 이동할 수 있어 생활 반경도 넓다. 부부는 연고 없는 완주에 와서도 금세 스며들 수 있었다. 귀농귀촌인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지역에 정착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귀촌은 로망이자 현실이다. 새로운 환경은 설렘을 주지만, 동시에 낯선 땅에서 스스로 자리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만 일상이 채워진다. 두 사람에게 완주의 시간은 도전이면서도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있다. 시골은 한가하지 않다. 직접 밭로 뛰어야 하는 만큼 도시보다 더 바쁘지만, 그만큼 새로운 시도와 기회를 품을 수 있다.

와양은 지난해 완주DMO와 인연을 맺으며 귀촌의 이야기를 전국에 소개할 기회를 얻었다. 이를 계기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완주의 매력을 전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왔다. 현재는 완주DMO와 협력해 음식, 공간, 체험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방문자들에게 오래 기억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지금은 완주DMO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셀럽로드 투어에 셀럽 3인 중 한 명으로 참여하고 있다. <경천면 로컬 투어_빵 한 입, 동네 한 걸음>에서는 와양대표가 귀촌한 계기와 지역살이, 창업의 실제 이야기를 나누고, 빵과 농장을 매개로 한 로컬 생활을 체험한다. 이는 지역의 기업과 협업을 함께 만드는 로컬 프로그램으로, 단순히 빵집을 넘어 지역 관광에도 힘을 보태는 활동이 되고 있다.

와양은 단순히 빵을 파는 공간이 아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이 즐거운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 운영의 중심에 있다. 맛있는 빵뿐만 아니라 따뜻한 서비스로 손님을 맞이하며, 방문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하고자 한다.

맛있는 빵 한 입에 담긴 지역의 이야기, 와양에서의 하루는 빵을 넘어서 경험으로 남는다. 좋은 재료와 정성, 그리고 사람과 어우러진 따뜻한 시간이 이곳의 진짜 매력이다.



숲속에서 피어난 문화와 상생의 공간



음악에서 공간으로, 새로운 출발

흐르는 물소리와 푸른 녹음으로 둘러싸인 완주군 상관면에서 김수연 대표는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카페 애드리브를 열었다. 서울에서 음악 활동을 한 김수연 대표는 부산에서 기획 일을 하던 남편과 함께 고향 전주로 내려온 뒤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다. 17만 평의 편백숲 부지는 자연이 주는 힘이 가득했고, 이곳에서 두 사람은 카페를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공연과 전시,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



함께 일하는 회사, 함께 자라는 꿈

에드리브는 완주에서 손꼽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김 대표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 간호사, 동생은 특수학교 교사로 일하며 오랫동안 장애인 교육과 복지에 힘써 왔다. 이런 가족의 바람은 자연스럽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회사"라는 목표로 이어졌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제품을 알리고자 해도 선뜻 거래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김 대표는 포기하지 않았다. 좋은 재료를 쓰고 꾸준히 교육하며 정직하게 제품을 만들었다. 시간이 흐르자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었고, 지금은 여러 기업과 연 단위 계약을 맺으며 안정적인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드립백 커피, 수제청, 제과제빵 등 다양한 제품은 장애인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다.



도전에서 오는 기쁨

에드리브의 성장은 수많은 도전 위에 세워졌다. 오픈 전 인테리어를 직접 설계하며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공간이 점점 모습을 갖춰갈수록 큰 보람이 되었다. 몇 달간 연구해 만든 소금빵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루 300박스까지 판매되며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기업과 협업한 행사 기획, 연 매출 10억 원을 넘는 성과도 이어졌다.

김 대표는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조금씩 쌓이는 결과가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한다. 교육과 고용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지만, 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꾸준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모두를 위한 공간

에드리브는 아이와 반려견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잔디밭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도록 개방했고, 어른들은 빈백에 앉아 숲을 바라보며 쉴 수 있다. 야외 분수와 족욕 공간, 펫존까지 마련해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카페는 점차 문화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아이들의 수학여행으로 수제청 체험, 차량 브랜드의 신차 전시 행사, 완주DMO와 협업해 관광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고, 다락 공간에서는 테라피 프로그램을, 야외에서는 미술대회와 전시 등을 열어 지역의 문화를 키워가고 있다.



나눔과 봉사

김 대표와 김 대표의 남편인 김현진 이사는 카페 운영과 더불어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봉사자 100명과 함께 완주 지역의 홀몸 어르신 50가구에 쌀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어르신들이 직접 찾아와 고마움을 전했을 때, 김 대표는 "더 많은 분에게 도움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굳혔다. 앞으로는 기부 티셔츠 프로젝트 등 새로운 봉사 활동을 준비하며 나눔을 이어갈 계획이다.



가족이 만드는 힘, 자연이 주는 힘



애드리브의 하루는 가족의 손길로 채워져 있다. 어머니가 장애인 직원들과 긴 시간을 보내며 교육과 대화를 이어가고, 김현진 이사(남편)는 행사와 봉사를 기획하며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아버지가 세운 공간 안에서 김 대표는 음악으로 길러온 감각을 녹여낸다. 가족 각자가 가진 경험이 서로의 빈틈을 메우며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있다.

김 대표는 “대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가족 모두가 함께 꾸러가는 일”이라고 말하며 모든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 또한 가족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숲과 자연이 주는 힘도 크다. 별빛이 가득한 밤하늘과 물소리, 눈 쌓인 날 직원들과 함께 눈을 치우던 기억은 애드리브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직원들이 함께 웃고, 작은 일을 두고 서로 잔소리를 주고받는 모습에서 김 대표는 매일 새로운 힘을 얻는다. 그는 “이곳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삶을 지탱해 주는 기쁨”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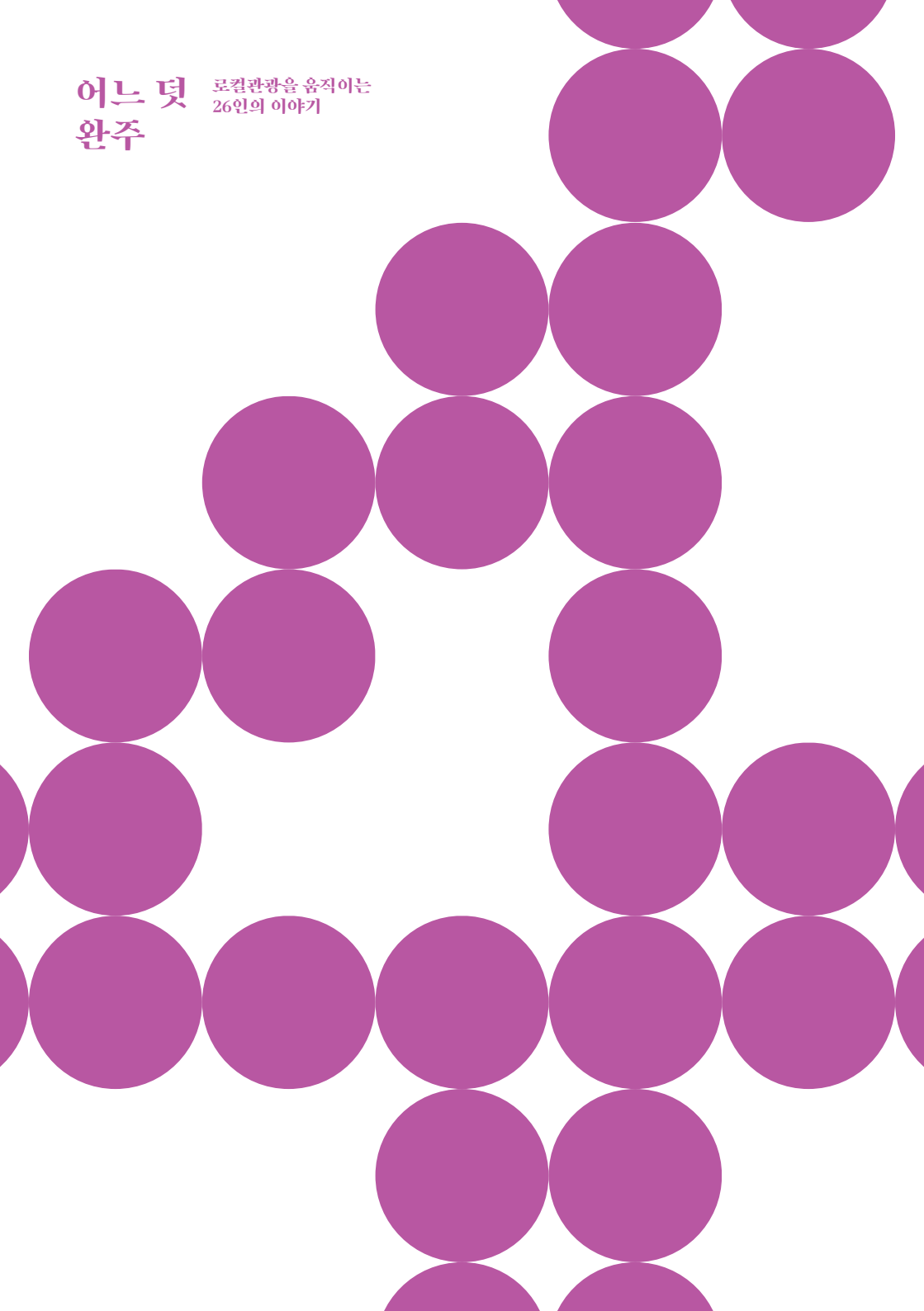
앞으로의 길

애드리브는 단순한 카페를 넘어 사람과 문화, 지역을 잇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 대표의 목표는 분명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꾸준히 함께 일하는 회사를 넘어, 장애 사원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찾고 연구하는 것, 동시에 봉사와 문화 기획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가치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매 순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오랜 시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 김 대표가 지켜온 원칙처럼, 애드리브는 신뢰와 꾸준함을 바탕으로 숲속에서 단단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어느 덧 완주

로컬관광을 움직이는
26인의 이야기



내일을 밝혀가다

20.	송미나	기획의 무대를 완주에서 열다 <새로기획>	90
21.	김은혜	완주에서 유행을 디자인하다 <보보하랑>	94
22.	송효웅	완주에서 마음의 불을 밝히다 <다음스테이>	98
23.	전별	로컬의 가치를 밝히다 <전스비주얼랩>	102
24.	정미영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복합문화공간 <아원고택>	106
25.	전재홍	미래 에너지로 나아가는 길 <AES테크>	110
26.	이은경	사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완주 <완주문화재단 이은경 국장>	114

완주에 기획의 무대를 만들다



서울에서 완주로, 그리고 기획의 시작

송미나 대표는 2024년 2월, 새로기획을 열었다. 영업직과 사무 업무를 하던 중 우연히 친구의 추천으로 행사 기획을 접하게 되었고,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현장 경험이 즐거움으로 이어졌다. 3년간의 실무를 거쳐, 본격적으로 기획을 시작한 건 2024년 초. "완주에 없는 걸 내가 해보자"는 마음으로 도전하게 됐다.

서울에서 완주로 내려와 지인 없이 시작한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자연 속에서 번아웃을 회복하며 방향을 찾았다.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공연, 어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아이들이 직업과 문화를 접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공연 기획이 시작되었다.

현장에서 입증하는 실력

2024년 한 해 동안만 15~16개의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운영했다. 다양한 유형의 행사에서 쌓은 경험은 자연스럽게 실무에 대한 감각으로 이어졌고, 2025년에도 다양한 기관, 단체와 함께하는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다.

기획자로서 초기에 마주한 벽도 있었다. 공연을 처음 기획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반신반의였다. “니가 이런 걸 할 수 있어?”라는 말도 들었다. 그러나 아이들을 위한 무료 뮤지컬 공연에 300~400명의 관객이 몰리며 분위기는 반전됐다. 그날 공연을 본 아이들과 부모들은 “다음에도 꼭 해달라”며 진심 어린 반응을 보였고, 그 순간이 가장 큰 보람이자 기획자로서의 확신을 안겨준 기억이 되었다.



완주, 그리고 기획의 무대

완주를 선택한 건 단순히 조용한 곳이어서가 아니었다. 서울에서의 빠르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이 주는 여유를 느끼며, 동시에 지역 안에 문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공허함을 함께 느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과 프로그램이 너무 적다는 현실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그 아쉬움이 기획의 출발점이 되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지만, DMO 사업에 참여하며 전환점을 맞았다. 주변의 추천으로 참여하게 된 사업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영감을 얻었고, 완주에서도 충분히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지금은 공연과 체험, 소상공인과의 협업을 중심으로 완주 안에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있다.

기본을 지키며

기획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기본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아이를 돌본 뒤 사무실에서 그날의 일정을 점검하는 것부터가 일과의 시작이다. 무대에 오르는 사람들만큼 무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그 무대를 결정짓는다고 믿는다.

최근에는 완주의 역사와 전통, 지역 고유의 이야기들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단절된 콘텐츠가 아니라 지역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 완주다운 프로그램을 고민하면서 전통 공연과 역사적 이야기들을 공부해나가고 있다. 문화란 결국 뿌리에서부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기획의 힘은 사람에서

행사 기획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예산도, 일정도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 의도의 전달이었다.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조율이 언제나 쉽지 않은 않았다. 하지만 현장을 함께하는 팀원들과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시선을 공유하며 조금씩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

무대 위에 올라오는 콘텐츠 하나, 마켓의 배치 하나, 행사장 속 체험 하나까지. 그 안에는 사람을 위한 설계라는 기본이 흐르고 있다. 관객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또 보고 싶어요"라고 말해줄 때, 그 말 한마디가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 누군가의 하루를 기획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그 하루를 더 즐겁게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지금 이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이유다.



앞으로의 무대

기획자로서의 목표는 크고 거창하지 않다. 누군가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정성껏 마무리하는 것. 무대가 아무리 화려해도 관객이 불편함을 느꼈다면 남는 것이 없고, 반대로 작고 소박한 자리라도 사람들이 웃으며 머물다 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숄미나 대표가 꿈꾸는 좋은 행사란 결국 그런 것이다. 평범한 하루에 작은 기쁨을 더해주는 시간, 그 기억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남는 것. 그것이 기획자로서 바라는 가장 큰 성과다.

완주에서 유행을 디자인하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감각

김은혜 대표는 미술을 전공했다. 트렌드에 민감했고, 빠르게 소모되는 유행을 즐겼다. 배달 문화가 대중화되기 전부터 온라인 중심의 판매를 구상했고, 2019년 창업 당시 코로나 팬데믹을 예상해 오프라인 매장 없이 인스타그램 기반의 온라인 마켓 보보하랑을 시작했다. 서울, 부산, 평택 등 전국에서 고객이 생겼고, 여전히 매장이 서울에 있는 줄 아는 사람도 많다.

온라인 기반의 마케팅에 강점이 있었던 그는 오프라인 매장 운영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폴리마켓을 기획하게 되었다. 셀러들이 함께 모여 수준 높은 마켓을 만들어간다면, 시골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마켓은 점차 전국 단위 셀러들이 참여하며 성장했고, 현재는 전북 안에서만 진행하면서도 전국 10위권 규모를 자랑한다.



완주에서 가능성을 보다

결혼을 계기로 전주에서 완주 봉동으로 이주했다. 도심에서의 삶에 피로를 느끼던 김 대표에게 봉동은 조용하고 안정적인 일상의 공간이었다. 병원, 카페, 편의시설이 갖춰진 소도시였고, 완주에 대한 로컬 감각과 외지의 감각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최적의 위치였다.

마켓을 시작할 당시 셀러비만으로 행사를 운영했지만, 완주 민생지원금이 나올 시기와 맞물려 참여율이 높았다. 전국에서 셀러들이 모였고, 그중에는 매회 빠짐없이 참가하는 고정 셀러도 생겼다. 실내에서 열리는 행사라는 점,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운영 방식은 참가자와 셀러 모두에게 높은 만족감을 줬다.



감각과 기준, 그리고 확장

보보하랑 마켓은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하나의 트렌드 공간이 되었다. SNS 콘텐츠의 위트 있는 운영 방식은 젊은 셀러들과 관람객에게 친숙함을 줬고, 지역 내에서도 새롭고 신선한 마켓으로 인식되었다. 20~30대 청년층은 물론, 중년층도 가족들과 함께 찾는 모습도 많아졌다.

김 대표는 마켓을 단순한 소비의 장이 아닌, 공동체가 연결되는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셀러와 지역의 연결, 로컬 브랜드의 발굴과 집중 조명, 그리고 교육과 강연을 접목한 콘텐츠 실험까지. 9월 마켓부터는 강연과 클래스를 결합하여 복합문화행사의 형태로 확장해볼 계획이다.

로컬에서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

완주문화선도산단과 함께한 경험은 김 대표에게 깊은 배움의 기회가 되었다. 행정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단체로서 서류를 준비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몸소 체험했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레 외부와의 연결 지점이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브랜드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기관과의 협업은 프로젝트의 범위를 넓혀주고, 새로운 실험의 가능성도 만들어준다. 물론 그만큼 운영상의 유연함이나 독립성은 조율이 필요하지만, 이를 통해 구조와 방향성이 더 단단해진다고 느낀다. 지금은 그 균형을 고민하며, 본질을 유지하되 열린 태도로 확장을 모색하는 중이다.

그는 단체나 기업과의 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대신 완주라는 지역 속에서 로컬 브랜드가 지역 관광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꾸준히 실험하고 있다. 마켓이 단순한 소비의 장이 아니라, 완주를 기억할 수 있는 경험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진정성을 유지하며 근본 있는 마켓으로 오래가는 것이 김 대표가 그리는 방향이다.





마켓을 넘어, 하나의 장면으로

어떻게 이런 성과를 냈냐는 질문에 김 대표는 "그냥 한다"고 말한다. 고민을 오래 하다가도 실행에 옮기면 잘 맞을 때가 많았다. 셀러들과의 네트워킹, 운영의 디테일, 감각적인 홍보까지. 힘은 들지만 마켓을 통해 지역 안에서도 충분히 도시 감각을 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는 마켓이 흔한 소비 행사로 남지 않고, 교육, 문화, 커뮤니티를 담아내는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유튜브나 콘텐츠 확장을 고민하고 있고, 마켓을 통해 지역을 재발견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다.



완주에서 마음의 불을 밝히다

다음스테이와의 만남



처음 창업을 하고 지역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었다.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정하지 않은 채, 지역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완주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다. 완주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던 송효웅 대표가 완주와 처음 인연을 트게 된 계기였다.

속소였던 다음스테이에서 3개월 지내면서 완주 사람들과 정이 듬뿍 들었다. 다른 지역과 달리 텃세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고 이전부터 귀농귀촌 인구가 많다 보니 의지할 이가 많았다. 그렇게 3개월

프로그램 과정이 끝날 무렵 조합으로부터 다음스테이 운영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 그동안 들었던 정을 뒤로하고 떠나기에는 아쉬움이 컸다. 내친김에 눌러앉기로 했다.

덜컥 다음스테이 운영을 맡기는 했지만 1년 동안은 사업자로서는 현상유지만 하기에 도 버거웠다. 1년이 지나면 감이 좀 잡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1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송 대표의 완주 정착이 가장 큰 고비를 맞았던 순간이기도 했다.

서울에서 완주로 내려오면서 급격히 줄어든 수입도 문제였지만 앞으로 다음스테이를 운영하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사실도 고민이었다. 자신을 믿고 응원해 주었던 이들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다. 일단 조금 더 버텨보기로 했다.

완주에서 만난 사람들을 믿고, 완주를 의지하고.

중장년에게 필요한 인생 리셋

그동안 송 대표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에는 중장년의 참여가 많았다. 중장년이 귀농 귀촌을 생각하는 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불확실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이 살아온 터전을 옮기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나이를 먹다 보면 젊을 때와 달리 실행에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고민도 많아지는 법이다. 그렇기에 중장년은 다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귀농귀촌의 사전 단계처럼 받아들이기도 한다.

다음스테이가 있는 고산은 풍광이 좋아서인지 우연히 찾았다가 마음먹고 정착한 이들이 제법 많다. 귀농귀촌을 꿈꾸고 있는 이들로서는 이러한 선배들의 생생한 체험담과 실전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게 행운이다. 이론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를 접할 수 있고 귀한 꿀팁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다음스테이에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완주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경험을 한 이들이 적지 않다. 혼자 왔다가 고산에 눌러앉은 이도 있다. 도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완주가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중장년의 기대는 정착한 이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확신으로 때로는 혼란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송 대표의 고민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런 고민을 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향하는 청춘을 위한 열린 실험실

다음스테이를 찾는 중장년이 은퇴 설계나 재도약을 위한 준비 개념이 강한 데 비해 청년층은 실험적인 성향이 강했다.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다음스테이 프로그램에는 바쁜 도시의 일상에서 방전되고 지친 청년들이 많이 찾았다. 그들은 이곳에서 치유와 힐링,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시도를 꿈꾼다.

송 대표도 그들과 어울리다 보니 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전북청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진행했던 <고봉밥 캠프 더 레드>의 경우, <나는 슬로다>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자는 단순한 발상에서 시작했다.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참여한 5쌍의 남녀는 완주를 매개로 하여 지역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올해는 <로컬 기획자의 초여름방학>이라는 이색적인 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일정 위주의 딱딱한 프로그램보다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관심 있는 영역을 찾도록 배려한 프로그램이었다. 이와 비슷한 취지의 <로컬푸드가 여행콘텐츠가 될 수 있을까>도 관심을 끌었던 프로그램이다. 완주가 로컬푸드의 성지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인기를 끄는 곳이니만큼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수확하고 유통하는 체험을 넣음으로써 농산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 결과는 좋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네 명의 청년 중 세 명이 완주에 남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셰어 하우스에 머물면서 완주를 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송 대표는 다음스테이가 완주를 찾는 이들에게 마중물 역할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노란 집에 환하게 불이 들어오는 일

최근 송 대표가 친구들과 함께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있다. 바로 노란 집 프로젝트. 읍내에 한동안 비어있던 공간을 지역의 사랑방처럼 이용하자는 게 취지다. 그동안 귀농귀촌을 했어도 마땅한 공간이 없다 보니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의 뜨내기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공간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할 일이 생긴다.

이런 실전에는 평소 다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지만 자신이 숙박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송 대표의 지론이 담겨 있다. 그는 숙박시설이야말로 완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완주에 대한 첫인상이자 완주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접점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완주를 방문해서 하루를 머무는 사람들은 완주에서 숙박하면서 완주를 알아간다. 그가 자부심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

송 대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완주DMO사업의 일환으로 고산 지역 자원을 조사하며 주민과 함께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에도 참여해 프로그램 운영을 함께 진행하며, 완주관광의 기반을 다지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다.

머무름이 길이 되는 곳

그는 앞으로 다음스테이를 운영하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로컬 베이캠프와 같은 존재로 남기를 기대한다.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베이캠프는 지친 몸을 다독이고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 전략을 세우며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송 대표는 이곳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이자 제2의 인생으로 가는 통로 역할을 했으면 한다. 그가 다음스테이를 만나면서 완주에서의 인생 전환점을 맞이하였듯이, 이곳을 찾는 누군가에게도 그런 세상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자 하는 이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다음스테이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로컬의 가치를 밝히다



지역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

전스비주얼랩은 로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알리는 데 집중한다. 지역과 주민을 잇는 콘텐츠 제작, 지역을 담은 상품 개발, 주민 수요를 반영한 행사 기획, 미디어 교육 격차를 줄이는 강의 활동까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른다. 지역의 이야기를 단순한 소개가 아닌, 지역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콘텐츠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들과의 협업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영감을 주며, 그 결과물은 단순한 작품을 넘어 공동체의 기억이 되기도 한다.

특히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특화 프로젝트를 통해 콘텐츠가 소비에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와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어낸다. 이는 단기적인 프로젝트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내 지속적인 문화적 흐름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콘텐츠 하나하나가 지역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지역 브랜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내일을 밝혀가다

지역에 대한 애정에서 시작된 여정

“왜 취업을 위해 꼭 서울로 가야만 하지?” 전별 대표는 이 질문에서 전스비주얼랩의 여정을 시작했다. 단순한 창업 동기가 아니라,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문제의식이었다. 이 질문은 단순한 개인의 고민에서 시작됐지만, 곧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장되었다. 청년들이 떠나는 지역, 기회가 줄어드는 고향을 마주한 전 대표는 떠나지 않고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지역을 떠나는 대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일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로컬의 가능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겠다는 다짐이 지금의 전스비주얼랩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다짐은 전 대표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실제로 그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사업을 확장해 왔다. 이는 창업이라는 수단을 넘어 지역 안에서의 삶을 선택한 실천이기도 하다.



함께 성장하는 인재들

전 대표는 지역 인재가 떠나지 않고도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청년과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스스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실행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은 단순히 일회성 교육이 아닌, 지역 내에서 자생 가능한 인재를 길러내는 장기 프로젝트의 성격을 띤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풀어내는 법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지역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자각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지역 인재가 자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완주DMO와의 만남

전 대표는 지역 인재가 떠나지 않고도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청년과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스스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실행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은 단순히 일회성 교육이 아닌, 지역 내에서 자생 가능한 인재를 길러내는 장기 프로젝트의 성격을 띤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풀어내는 법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지역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자각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지역 인재가 자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완주DMO 사업의 일환인 봉동활성화청년기획단에서 활동하며, 지역 청년과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의 미래

전스비주얼랩이 바라보는 목표는 단발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다. 지역민이 꾸준히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에 맞는 아이템을 발굴해 나가고자 한다. 이는 단지 사업 확장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지역의 생태계를 고려한 방향성이다. 콘텐츠와 사람, 자원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주민과 소통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전 대표는 “지역의 미래는 한 사람이나 한 기관의 힘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주민, 기업, 행정이 함께할 때 지역은 성장한다. 각 주체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존중하고, 서로 보완하는 구조야말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전스비주얼랩은 그 과정 속에서 로컬의 가치를 밝혀내고, 인재를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앞으로도 전스비주얼랩은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새로운 모델을 계속해서 제시할 계획이다. 그 여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복합문화공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아원고택

아원(我園) MUSEUM&HANOK은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종남산 산 자락 아래 위치한 복합 문화공간이다. 250년 된 경남 진주의 전통 한옥을 이축하여 현대적인 건축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한옥 고택과 미술관, 생활관이 공존하는 이곳은 자연과 전통, 그리고 현대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고 있다.

아원을 방문한 방문객들은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전시를 감상하고, 동시에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가 함께 살아 숨 쉬는 아원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시간의 흐름을 체험하는 문화 무대라 할 수 있다.



웰니스 관광지로 주목받는 아원고택

아원고택은 단순한 한옥 스테이를 넘어서는 공간으로, 전통과 현대의 미학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몸과 마음의 치유를 제공한다. 자연의 소리와 고택이 주는 정서 속에서 보내는 하루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심을 선사하며, 다시 찾고 싶은 이유가 된다.

이러한 매력 덕분에 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이 선정한 웰니스 치유관광지로 지정되었다. 한옥과 자연이 어우러진 고유한 경험이 완주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250년 전통 한옥을 복원한 공간

아원의 시작은 전해갑 대표의 한옥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20여 년 전부터 한옥 업사이클링을 시작했고, 5년 동안 전국을 다니며 100년 이상 된 한옥 30여 채를 조사했다. 그 끝에 경남 진주의 250년 된 고택을 완주로 이축하기로 결심했다.

수백 년 세월을 간직한 목재와 기와를 옮겨 다시 세우는 일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문화유산이 되살리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지금의 아원이 되었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 철학

아원의 철학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기존의 돌담과 대나무 숲을 최대한 보존하며, 현대적 건축 요소를 가미해 전통의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실용성을 갖춘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실제로 아원의 건물들은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듯한 조화를 이룬다.

방문객들은 이러한 공간에서 자연을 느끼고 예술을 경험하며, 머무는 것만으로도 편안함과 치유를 얻는다. 아원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삶의 숨결을 회복할 수 있는 웰니스 공간으로 자리 잡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역 문화·예술·관광 활성화의 중심지

정미영 팀장은 아원이 지역 문화·예술·관광 활성화의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활동을 이끌어왔다. 완주DMO와 함께하며 완주소양미디어아트페스타 등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아원은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그는 아원이 단순한 숙박과 전시의 장소를 넘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지역 예술가와 협업하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완주 문화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K-콘텐츠 촬영지로 도약

최근 아원고택은 드라마 보물섬의 촬영지로 주목받았다. 허준호의 집으로 등장한 아원은 독특한 건축적 특징과 분위기로 극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담아냈다. 특히 콘크리트 건물 위에 세워진 한옥 전경은 주인공의 욕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웅장하고 독립적인 공간미를 완벽히 표현했다.

이 경험을 계기로 아원은 글로벌 OTT와 K-콘텐츠 제작진이 주목하는 촬영지로 자리 매김했다. 한옥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의 아름다움이 세계에 알려지며, 아원은 한국적 공간을 대표하는 국제적 무대로 도약하고 있다.

아원이 그려가는 내일의 풍경

정 팀장은 앞으로도 완주DMO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더욱 다양한 문화·예술·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할 계획이다. 웰니스 치유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한옥과 자연이 전하는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자 한다.

그는 아원이 완주를 대표하는 복합 문화공간을 넘어,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로 발전할 것이라 강조한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완주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이 아원의 비전이다.



아원이 추구하는 가치

아원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관계의 공간을 지향한다. 방문객이 한옥의 고풍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연의 시간에 맞춰 천천히 쉬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원의 가장 큰 철학이다. 앞으로도 지역과 예술, 그리고 일상의 치유가 어우러지는 경험을 통해 완주의 정체성을 담은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미래 에너지로 나아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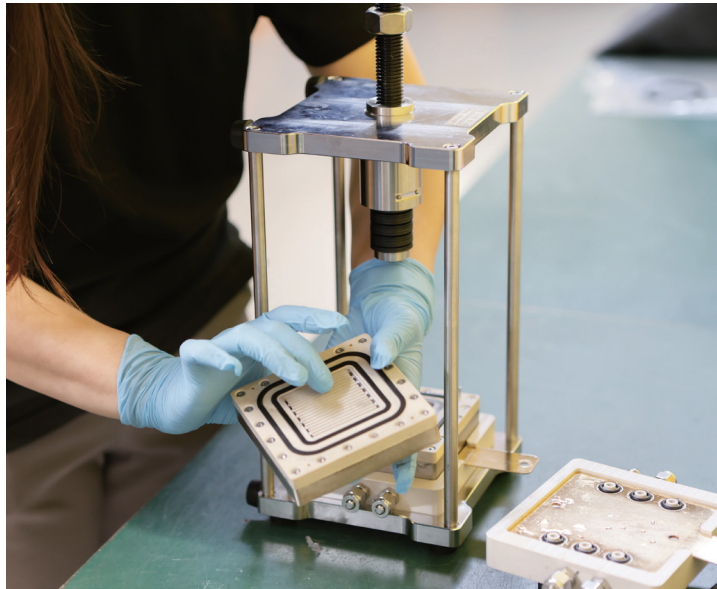
수소도시 완주에서 태어난 기업

전재홍 대표는 원래 10여 년간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무역을 해왔다. 코로나 시기에는 마스크와 진단키트를 수출했고, 팬데믹이 끝나갈 즈음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던 중 수소 산업을 접했다. 오랜 지인이자 현재의 파트너인 이창현 교수의 제안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AES테크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완주는 대한민국 최초의 수소도시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이후, 완주는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요한 실험장이자 전략적 거점으로 부상했다. 이곳에는 전북대학교, 우석대학교, 군산대학교 등 수소 관련 학과와 연구소를 갖춘 대학이 포진해 있다. 이들이 배출하는 전문 인력은 단순히 학문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산업 현장과 긴밀히 연결되며 지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연구 단지처럼 기능한다.

이 흐름 한가운데 자리 잡은 기업이 바로 AES테크다. 이름부터 낯설고 목적하다. AES는 Ammonia Electronic Scissors의 약자로, 암모니아를 전기로 자른다는 뜻을 담고 있다. AES테크는 이 이름처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액화 암모니아 전기 분해 시스템을 통해 수소를 추출한다. 기존 수소 생산 방식이 갖는 높은 비용, 탄소 배출, 수송과 저장의 난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한 이 기술은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AES테크의 핵심 기술은 액화 암모니아를 전기로 자르는 것이다. 물에 전극을 꽂으면 한쪽에서는 수소가 다른 한쪽에서는 산소가 발생하는 원리처럼, 액화 암모니아를 고압 용기에 넣고 전극을 꽂으면 한쪽에서는 수소가, 다른 한쪽에서는 질소가 발생한다.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암모니아와 수소를 원활하게 유통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컨테이너에서 확장되는 연구실

AES테크 연구실은 컨테이너를 본떠 구성되어 있는 공간으로 독특한 풍경을 보여준다. 암모니아는 특유의 강한 냄새 때문에 누출 시 전체 작업이 마비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연구실을 팀별로 나누고, 각각 독립된 공간에서 안전하게 연구가 이뤄지도록 설계했다. 더불어 AES테크의 장비 자체가 컨테이너형 모델이라는 점도 반영됐다. 수소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충전소 규모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컨테이너를 단위로 손쉽게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실험실에도 적용한 것이다.

회사의 내부 문화는 수평적이다. 대표를 포함해 모두가 영어 이름을 사용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눈다. 새로운 기술 개발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 대표는 “팀원들을 생각하면 든든함과 책임감이 함께한다”고 말한다. 어려운 목표라도 함께 힘을 모은다면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팀워크의 바탕이다.

지역과 함께하는 AEST테크

AEST테크가 완주에 자리를 잡은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 국가 지정 수소도시로서 정책적 지원이 크고, 수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전북대·우석대·군산대 등 수소 특화 대학들이 가까이 있어 전문 인력을 지역 안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다. 현재 완주에는 수소 관련 공기업과 평가원이 닳처럼 자리를 잡았고, 이들과 연결된 기업들이 모여며 특화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AEST테크는 기술 개발만이 아니라 사람과 지역의 성장을 함께 바라본다. 회사 생활을 통해 사회적 기여, 회사에 대한 기여, 자아실현이라는 세 가지 성취를 팀원들이 경험 하길 바란다. 나아가 완주 내 수소 특화 고등학교와 교육 기관 등과 연계하여 인재를 키우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AEST테크의 꿈이다.

이러한 노력은 기술 개발에만 머물지 않는다. AEST테크는 현재 완주DMO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셀럽로드 투어에 셀럽 3인 중 한 명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 투어·수소로 여는 미래의 하루>를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수소 산업을 직접 경험 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EST테크 투어에서는 전재홍 대표와 연구원들을 만나 수소 산업의 원리와 미래 전망을 배우고, 공정을 둘러보며 차세대 에너지 산업을 체험할 수 있다. 기술 개발뿐 아니라 수소 교육과 관광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려는 AEST테크의 의지가 담긴 활동이다.





위기와 가능성을 함께 전하다

전 대표는 기후위기에 대해 "위기감과 가능성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한다. 기후 변화는 언뜻 실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머지않아 우리 삶의 조건이 된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극복 가능한 성격의 위기이며,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수소와 암모니아는 낯설고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 속에는 미래를 열어갈 열쇠가 숨어 있다.

AES테크 투어가 단순한 기업 견학을 넘어, 위기와 가능성을 함께 체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사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완주



지역과 함께 쓰는 첫장

완주는 문화와 관광을 함께 키워가기 위해 문화관광산업국을 신설했다. 이은경 국장은 이곳에서 선도산단사업과 문화도시사업 같은 새로운 과제를 맡고 있다. 공모 사업 중심의 구조 속에서 자립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방식 또한 완주만의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 올해는 문화도시 지정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 앞으로 완주가 어떤 도시로 인식될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 국장은 원래 공학도로, 게임 관련 기업과 문체부 산하 기관에서 일하다 중국에서 문화 교류를 경험했다. 코로나19로 귀국하며 지역에서 자리 잡아야겠다는 마음을 품었고, 완주문화재단에 합류했다. 처음 맡은 역할은 기술의 흐름을 문화 영역에 접목하는 일. 그때부터 그는 기존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재단의 새로운 길을 찾는 데 집중했다.



함께 성장하는 네트워크

재단에서 보낸 3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DMO사업이다. 그전까지 지역의 관광 협의체들은 각기 흩어져 제각각 활동하고 있었다. 이 국장은 그들을 한자리에 모아 거버넌스를 만들었지만 초기에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협의체들은 사업을 계기로 모이고, 네트워킹을 통해 차츰 단합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공통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성과가 쌓였으며, 외부 관광 환경을 접하며 시야를 넓히자 변화의 속도도 한층 빨라졌다. 이러한 변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재단은 다양한 지역의 사례를 공유하고, 선진지를 견학하며, 워크숍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협의체들은 이 과정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어 실행하며 지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작은 목소리를 담는 힘

2024년 완주의 DMO사업은 전국 유일의 S등급을 받았다. 이 국장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성공 요인은 오히려 작고 평범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는 태도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발전적인 제안만을 함께 나누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함께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자리를 내주었고, 의견을 단순히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실현할 방법을 함께 모색했다.

또한 회의에 꾸준히 참여해야 기회를 얻는 구조를 만들어 협의체의 책임감을 키웠고, 필요할 때는 역량 강화 컨설팅 등을 통해 성과로 이어가도록 도왔다. 재단이 모든 걸 기획하고 끌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협의체가 직접 기획에 참여하고 성과를 만드는 구조. 바로 그것이 완주만의 차별화 전략이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 지역의 어벤저스

이은경 국장은 자신과 함께하는 직원들을 어벤저스라 부른다. 완주 관광의 발전에 각자가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때로는 24시간 열려 있는 채널처럼 움직이며 현장을 챙기는 동료들이 있었기에 재단이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의 노고는 곧 성과로 이어졌다. 지역 관광 협의체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성과를 나눌 수 있던 것도 직원들의 헌신 덕분이었다. 이 국장은 "우리의 역할은 재단이 안정적으로 나아가도록 조력하는 동반자이자, 현장에서 애쓰는 분들과 발맞추는 조력자"라며, 동료들의 책임감과 성실함이 완주의 성장에 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완주의 매력, 그리고 새로운 키워드

완주 관광의 가장 큰 자원은 사람이다. 이곳에는 각자의 색과 열정을 가진 이들이 지역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독특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 많고, 지역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려는 열정도 크다. 바로 그 점이 완주를 특별하게 만든다. 재단은 그들의 개성과 역량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곁에서 돕고, 스스로 설 수 있는 기반을 함께 찾아가고자 한다.

이 국장이 새롭게 주목하는 키워드는 A이다. 관광은 결국 개인의 성향과 맞아야 한다. 그는 “A가 개인의 성향을 읽어 맞춤형 관광을 제안해 줄 수 있다면, 완주가 전국적인 혁신 모델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한다. 기술이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재미와 경험을 덧입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내일

관광 효과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완주는 대규모 단체 관광지가 아닌 소규모 방문 중심이라 주민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주민이 운영하는 식당과 체험이 관광의 일부가 되고, 재단은 이들과 긴밀히 연결된다. 처음에는 공모 사업을 모르는 이들이 많아 설명회를 따로 열었고, 사업의 어려움을 느끼는 협의체에 사업 계획서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왔다. 그 결과 협의체들은 눈에 띄는 성과를 얻었고, 재단은 믿고 기댈 수 있는 기동이라는 평가도 들었다.

앞으로의 전략도 결국 사람에 있다. 이 국장은 관광 상품은 수단일 뿐,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역량을 키워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완주 관광의 미래다.

마지막으로 그는 “완주에서 꼭 경험해야 할 것은 풍경보다 사람의 열정”이라고 전한다. 청년들이 왜 이곳에서 무언가를 시도하는지, 왜 굳이 이 지역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들여다보는 경험. 그 호기심이야말로 완주 여행의 진짜 매력을 발견하게 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어느 텃 완주

로컬관광을 움직이는 26인의 이야기

발행처	재단법인 완주문화재단
기획	완주문화재단 문화관광산업국 이은경, 이혜인, 김혜원
편집	장창영, 김리오
디자인	도트블루

※ 이 자료집에 수록된 사진 및 글의 저작권은 완주문화재단에 있습니다. 사진과 텍스트를 사용하시려면 미리 저작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완주문화재단
Wan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완주 DMO



어느 덧 완주

로컬관광을 움직이는
26인의 이야기

완주문화재단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
T. 063-262-3955 F. 063-262-3956